

High Five
to your life!

춘천시와 홍천군이 함께하는 한림성심대학교 HiVE 사업 — 성과 사례집



한림성심대학교 HiVE 사업단

춘천시와 홍천군이 함께하는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

성과 사례집



춘천시와 홍천군이 함께하는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

성과 사례집

목차

CHAPTER

I

사업단 소개

- 1.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소개 8
- 2. 사업단 소개 9
- 3.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 비전 및 목표 10
- 4. 사업추진 체제도 11

CHAPTER

II

특화분야 연계 학과 소개

- 1. 바리스타 제과제빵과 14
- 2. 디지털미디어콘텐츠과 16

CHAPTER

III

사업 운영 결과보고

- 1. 사업 주요내용 20
- 2. 프로그램 운영실적 21
- 3. 성과지표 달성 현황 22
- 4. 거버넌스기관 협업 현황 23
- 5. 운영성과 24
- 6. HiVE사업단 향후 운영 방향 25
- 7. 만족도 조사결과(자체) 26

CHAPTER

IV

프로그램 소개 및 수기

- 1. 자연힐링 Food&Coffee 30
- 2.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62
- 3. IT융합 전문가 인큐베이팅 86
- 4. 레저전문가 인큐베이팅 100
- 5. 키즈케어 코칭 108
- 6. 청장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116
- 7. 시니어 헬스케어 118
- 8. 친환경 마을공동체 조성 128



“2022년 한림성심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성과사례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문영식입니다. 우선 2022년 한림성심대 HiVE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해준 담당 교수 및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뜨거운 배움의 열정을 보여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 한림성심대학교는 지난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명문 사립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2년 한림성심대학교는 춘천시, 홍천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에 선정되었고, '자연힐링 Food & Coffee', '실감형미디어콘텐츠'를 지역 특화분야로 설정하여 지역 내 정주인력 양성과 고령화, 청년유출 등 지역 현안 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HiVE사업은 2023년 2월까지 9개월 동안 춘천과 홍천에서 총 59개의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내 성인학습자 603명이 수료하였고, 높은 교육 만족도와, 취창업, 자격증 취득 등 가시적인 성과들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와 함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춘천시와 홍천군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HiVE사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2년간 한림성심대학교는 춘천과 홍천의 지역특화분야 인력 양성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청년인재 유출 및 인구 소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문영식**



“6차산업 기반 食道樂 관광특화 인재 양성” 한림성심대학교와 춘천시, 홍천군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 단장 이현주입니다.

우선 저희 HiVE사업단의 전문직업교육과정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춘천시, 홍천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다수의 거버넌스 기관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지역인구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에 닥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2022년 6월 교육부가 선정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저희 HiVE사업단은 사업이 선정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지역주민들의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에 걸맞는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하여 수강생들에게 최고의 고등직업교육을 제공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빛났던 것은 수강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었습니다. 이번 성과사례집 발간을 통해 많은 수강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사업단장으로서 HiVE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였고 큰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은 더 많은 지역주민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춘천시와 홍천군에서 필요로 하는 고등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청·장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수강생 여러분과 저희 사업단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HiVE사업단장 **이현주**



CHAPTER I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 성과 사례집

HI! V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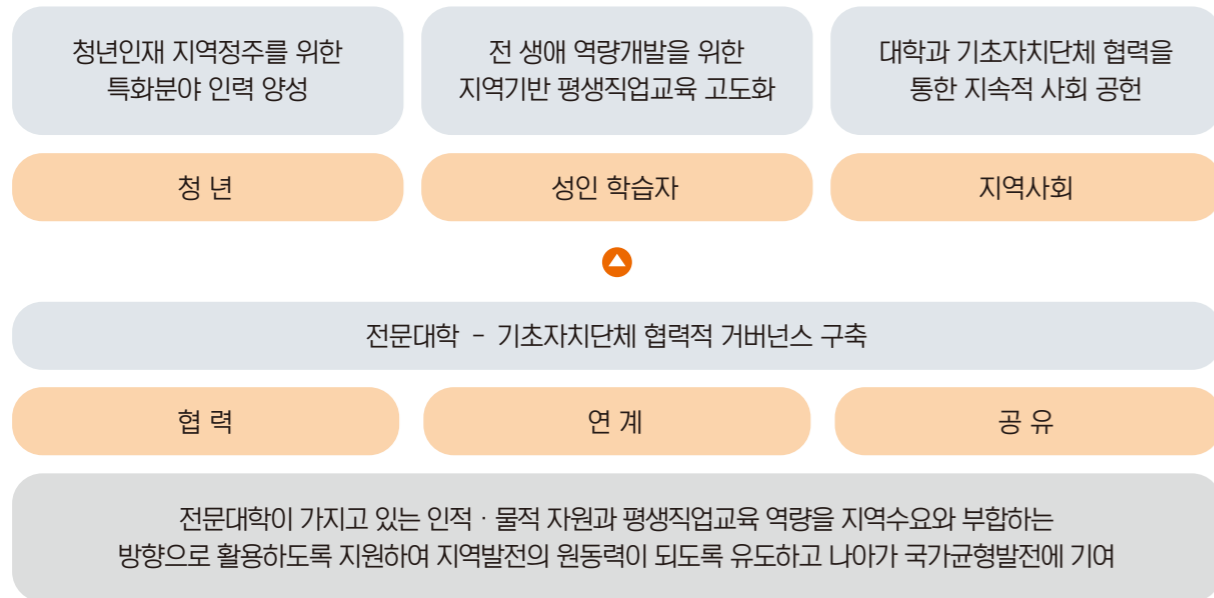
사업단 소개

1.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소개	8
2. 사업단 소개	9
3.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 비전 및 목표	10
4. 사업추진 체제도	11

1.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 사업기간 : 2022년 6월 ~ 2025년 2월 (3년간)
- 사업예산 : 연간 15억원 내외 (국고+지방비)
- 사업내용 :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지원하는 사업



■ 주요 사업내용

- | | |
|----|---|
| 필수 | <p>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구성, 운영 <p>지역특화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재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단체/전문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특화분야 선정 ↳ 지역특화분야 맞춤형 학사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 연계 정주 인재 양성 <p>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분야 연계 직업교육] 지역특화 학과 연계 직업교육 심화과정 운영 ↳ [일반분야 직업교육] 전문대학 학과, 지역 교육/구직수요 등을 반영하여 단기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전직교육, 자격증 취득, 창업교육 등) |
| 자율 | <p>지역 내 현안 해결 프로그램 수행 등 지역사회 공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사항을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행 ↳ 전문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 위탁운영, 대학 내 시설 주민 개방 등 지역사회 내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 ↳ 지역 내 접근성이 높은 대학 일부 시설을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관으로 공유·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타사업과 중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타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는 체계 구축 |

2. 사업단 소개

한림성심대학교는 춘천시, 홍천군과 컨소시엄을 맺고 지역정주인력 양성에 필요한 특화 분야 2가지 (자연힐링 Food&Coffee,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특화 분야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이 출범하였으며 크게 3가지 분야(지역 특화분야 연계 교육과정, 평생 직업교육 고도화, 지역사회 공헌 자율과제)의 영역을 구축하였다.

2022년도에는 평생직업교육 고도화와 지역사회 공헌 자율과제 영역에서 8개의 프로그램과 59개의 교육과정을 추진하였다. 춘천시 홍천군에 속해 있는 다양한 산업체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공유를 통하여 지역정주인력양성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였으며 더 나아가 HiVE사업단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 운영을 통해 차년도에는 교육생들에게 취창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3.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 비전 및 목표

VISION

지자체 · 전문대학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특화 정주인력 양성

사업목표

6차산업 기반 食道樂 관광특화 인재 양성

중장기 발전계획

춘천시

- 관광 문화예술도시 구현
- 웰니스 식품 및 서비스 산업 고도화
- 첨단 콘텐츠 기업 활성화

한림성심대학교

-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 평생 직업 교육 고도화
- 사회적 가치 실현

홍천군

- 온·오프라인 관광 산업 활성화
- 지역 대표 음식 브랜드화
- 농축산업 융복합 6차 산업화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HiVE사업단

High FIVE - LIFE : Eating, Enjoing ,Playing, Resting, Healing

특화 분야 ①

자연힐링 Food&Coffee

특화 분야 ②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지역특화 분야

사업추진 핵심영역

사업추진 핵심과제

추진 내용

지역특화분야 연계교육과정

자연힐링 Food & Coffee |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 | | |
|-------------------------------|--|
| 바리스타 마스터
프로 파티시에
양조 전문가 | 실감형 콘텐츠
Pre-Production
실감형 콘텐츠
Production
실감형 콘텐츠
Post-Production |
|-------------------------------|--|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특화분야 프로그램 | 일반분야 프로그램

- | | |
|---|---|
| 지역특화 제빵 커피 바리스타
VR/AR 콘텐츠
패키지 및 로고 디자인 제작
영상촬영 및 편집 전문 | 3D프린터자격 디지털커머스
항공영상 촬영제작
라이프가드 / 캐디 |
|---|---|

지역사회 공헌

지역현안 해결과제 타 사업 연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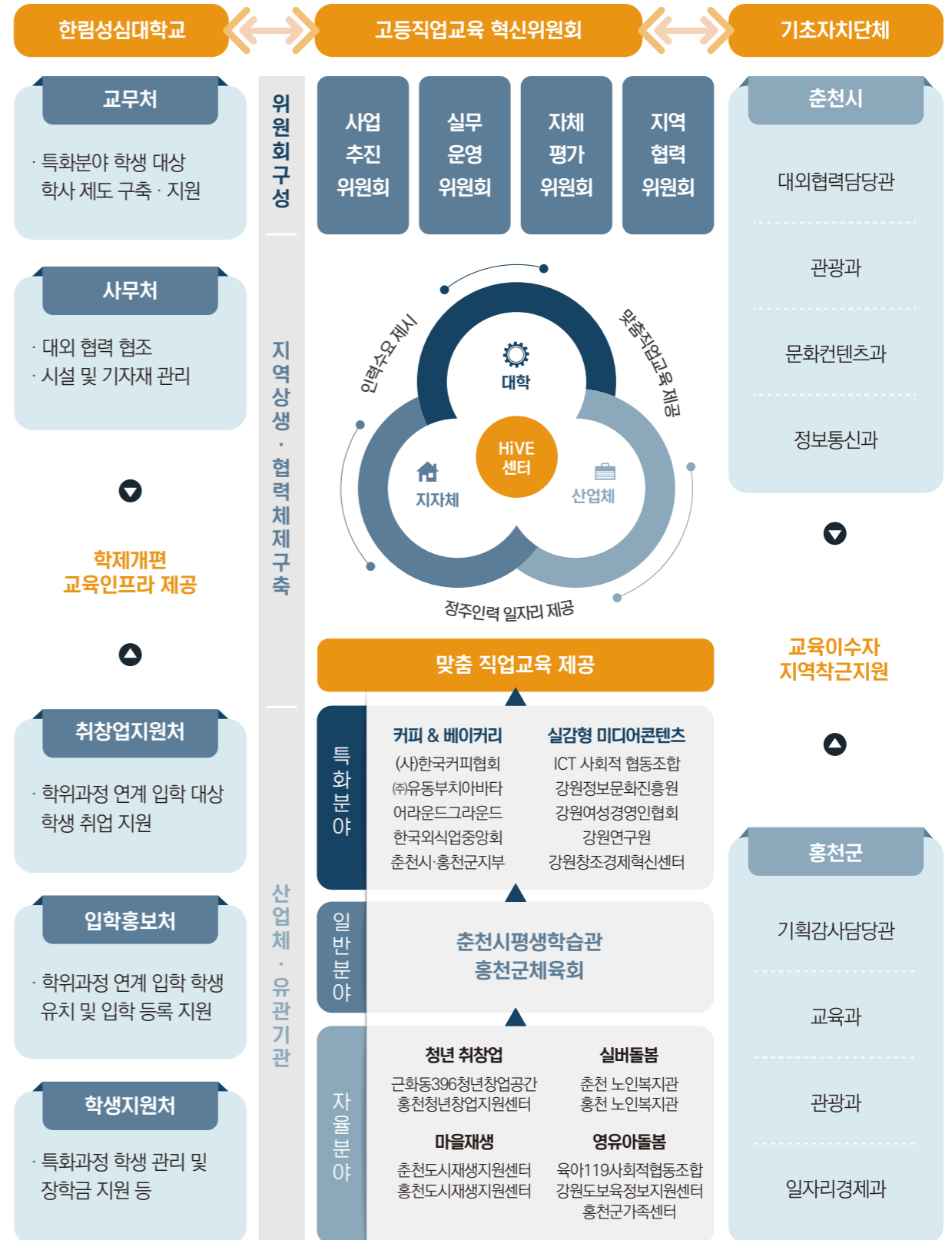
- 키즈케어 코칭
- 청·장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 시니어 헬스케어
- 친환경 마을 공동체 조성
- 홍천푸드 소비 확대 및 6차 산업화

거버넌스 구축

고등직업교육 혁신위원회 구성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

- 평생직업교육 거버넌스 운영규정 제정 및 행/제정 지원체제 구축
- 평생직업교육 거버넌스 연계 협력 체계 강화
- 평생직업교육 통합 클러스터 구축 및 확산

4. 사업추진 체제도



CHAPTER II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 성과 사례집

HI VIVE

특화분야 연계 학과소개

1. 바리스타 제과제빵과	14
2. 디지털미디어콘텐츠과	16



커피로 보는 아름다운 세상!
 빵으로 보는 건강한 세상!
 양조로 보는 살맛나는 세상!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으로 특화 학과 선정”



취득가능 자격증

- 바리스타 / 커피지도사 / 홈카페마스터 / 로스트마스터 / 티마스터
- 제과기능사 / 제빵기능사 / 케이크디자이너
- 와인소믈리에 / 수제맥주 / 전통주 / 칵테일

졸업 후 진로방향

- 취업
- 전공심화과정 연계 4년제 학사학위 취득
- 관광 및 식음료 관련 4년제 대학 편입

취업분야

- 호텔&리조트, 관광&외식 분야
- 커피 분야
- 제과제빵 분야
- 양조 분야, 창업 분야 등 취업 가능



한국바리스타사관학교 인증 학교
 현장 견학 및 체험
 대회 개최 및 참가
 전공심화과정 4년제 학사학위 취득

“미래의 희망~!
 바리스타 제과제빵과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보세요!”

한림성심대학교 **바리스타제과제빵과** <http://bnf.hsc.ac.kr> 033)240-9280

최고의 교육시설과
최고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최고의 교수진이
최고의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23년 입학생에게
졸업 때까지
HIVE사업단
장학금 지급
(국가장학금지급 범위내)



▲ 대한민국 최고의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한국바리스타사관학교 인증 학과



▲ 체육대회



▲ 최고의 교육여건 및 실습장비 보유



▲ 커피농장 체험 및 견학

학과 행정실 033-240-9280

- | | | | |
|---------|----------------------|----------------------|----------------------|
| ◆ 학과 교수 | 김명섭 교수 010-3726-8578 | 유선옥 교수 010-9083-4996 | 전용태 교수 010-2810-1107 |
| | 박지윤 교수 010-9247-6344 | 신혜경 교수 010-9048-6072 | |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 기반 콘텐츠 기획!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으로 특화 학과 선정”

23년 입학생에게 졸업 때까지
HiVE사업단 장학금 지급 (국가장학금지급 범위내)



주요 교육 과정

-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교육 특성화 학과
-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
- 3D모델링, 특수효과, 시각화 제작
- VR/AR 콘텐츠 제작 및 응용
- 항공영상 촬영, 편집, 제작
- 실감형 게임 제작 응용

취득가능 자격증

- 3D 모델링디자인 전문가
- VR/AR 콘텐츠 전문가
- 360 VR 콘텐츠 전문가
- 어도비 그래픽 자격증(일러,인디자인)
- 3D 프린트 운용 기능사
- MOS, 유니티 자격증

취업분야

-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 회사
- 2D 그래픽, 3D 제품 모델링 회사
- 3D 입체영상 제작, 편집, 창작 회사
- 영상, 광고, 특수효과 제작회사
- 실감형게임, 모바일 게임 제작 회사
- 3D 프린트 출력, 후가공 회사

학사 운영 과정

- 1, 2학년 (디지털미디어콘텐츠과)
- 3, 4학년(전공심화과정)
- 4년제 학사학위 취득

4년제 대학 무시험 편입

-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빅데이터, 콘텐츠IT, 스마트IoT)

한림성심대학교 디지털미디어콘텐츠과 <https://ct.hsc.ac.kr> 033)240-9100



최고의 교육시설 구축



▲ VR스튜디오 실습실



▲ AR스튜디오 실습실



▲ 메이커 팩토리 실습실



▲ 콘텐츠 제작 실습실



자격증 취득 교육 및 응시료 지원
산업체 전문가 특강, 커리어설계 교육
산업체와 함께 제품 제작 및 개발
산업체 현장실습 및 인턴십 교육비 지원
국내, 국외 전시회, 견학, 우수업체 탐방
전공동아리, 공모전, 경진대회 참여 지원

“미래가 있는
꿈을 심고 꿈을 키우는
디지털미디어콘텐츠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과 행정실 033-240-9100

- | | | | |
|---------|----------------------|----------------------|----------------------|
| ◆ 학과 교수 | 배종식 교수 010-9058-7800 | 조영식 교수 010-2240-9108 | 지병준 교수 010-5655-9104 |
| | 노원일 교수 010-3775-3998 | 최지혜 교수 010-3519-2741 | 김원수 교수 010-7174-3113 |

CHAPTER III

HI VIVE

사업 운영 결과보고

1. 사업 주요내용	20		
2. 프로그램 운영 실적	21		
3. 성과지표 달성 현황	22		
4. 거버넌스 기관 협업 현황	23		
		5. 운영성과	24
		6. HiVE사업단의 향후 운영 방향	25
		7. 자체 만족도조사 결과	26

1. 사업 주요내용

■ 특화분야 연계 교육과정

- 지자체 정책 및 산업 여건을 반영한 지역 특화 분야 선정
 - 춘천·홍천 지역 베이커리카페 산업체 증가에 따른 학과 개편 및 강화
 - ICT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실감형 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 개편 분야 및 연계학과

자연힐링 Food & Coffee 분야	실감형 미디어콘텐츠 분야
바리스타제과제빵과	디지털미디어콘텐츠과

- 지역특화 인재양성 트렌드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 개편방향에 맞는 전문가 활용/ 현장실습/역량 강화
 - 거버넌스 기관 및 유관분야 산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취·창업 지도

■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 특화분야 연계 직업교육

자연힐링 Food & Coffee	실감형 미디어콘텐츠
[파티쉐 전문가 과정] : 6개 프로그램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 : 7개 프로그램 [지역특화 푸드 과정] : 5개 프로그램	[디지털콘텐츠 과정] : 10개 프로그램 [지역특화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 3개 프로그램

- 지역수요 맞춤형 일반분야 직업교육

IT융합전문가 인큐베이팅	레저전문가 인큐베이팅
[미래JOB다 프로젝트] : 5개 프로그램 [스마트 워킹] : 4개 프로그램	[Dream Life 레포트] : 2개 프로그램

■ 지역현안 연계 자율과제

- 지역현안 해결과제 :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유출 문제

키즈케어 코칭	청장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시니어 헬스케어
5개 프로그램	2개 프로그램	4개 프로그램

- 타 사업 연계 과제

친환경 마을공동체 조성	홍천푸드 소비 확대 및 6차산업화
6개 프로그램	1개 프로그램(2023년부터 진행 예정)

2. 프로그램 운영 실적

1.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및 지역사회공헌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2023. 2. 16 기준

지역	구분	운영 프로그램	모집 정원	모집 인원	모집률	수료 인원	수료율				
춘천	지역 특화분야 연계 직업교육	자연힐링 Food&Coffee	바리스타 전문가	4개	40명	51명	127.5%	46명	90.2%		
			파티쉐 전문가	4개	40명	56명	140.0%	52명	92.9%		
			지역특화 푸드	3개	30명	33명	110.0%	28명	84.8%		
	지역특화 분야 연계 직업교육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7개	70명	75명	107.1%	66명	88.0%		
			지역특화 크리에이터	3개	30명	34명	113.3%	21명	61.8%		
			일반분야 직업교육	IT융합전문가 인큐베이팅	미래JOB다 프로젝트	4개	40명	56명	140.0%	53명	94.6%
	스마트워킹	3개	30명		35명	116.7%	33명	94.3%			
	지역공헌 자율과제	키즈케어 코칭		3개	30명	40명	133.3%	39명	97.5%		
		청장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1개	10명	8명	80.0%	4명	50.0%		
		시니어 헬스케어		2개	20명	35명	175.0%	34명	97.1%		
친환경 마을공동체 조성		3개	30명	27명	90.0%	25명	92.6%				
소계			37개	370명	450명	121.6%	401명	89.1%			
홍천	지역 특화분야 연계 직업교육	자연힐링 Food&Coffee	바리스타 전문가	3개	21명	30명	142.9%	29명	96.7%		
			파티쉐 전문가	2개	14명	20명	142.9%	20명	100.0%		
			지역특화 푸드	2개	14명	20명	142.9%	19명	95.0%		
	지역특화 분야 연계 직업교육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3개	21명	25명	119.0%	18명	72.0%		
			일반분야 직업교육	IT융합전문가 인큐베이팅	미래JOB다 프로젝트	1개	7명	10명	142.9%	6명	60.0%
			스마트워킹		1개	7명	9명	128.6%	9명	100.0%	
	지역공헌 자율과제	레저전문가 인큐베이팅	Dream Life 레포트	레저전문가 인큐베이팅	2개	15명	24명	160.0%	24명	100.0%	
				키즈케어 코칭	2개	14명	17명	121.4%	17명	100.0%	
		청장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1개	7명	12명	171.4%	8명	66.7%		
		시니어 헬스케어		2개	14명	25명	178.6%	21명	84.0%		
친환경 마을공동체 조성		3개	21명	32명	152.3%	31명	96.9%				
소계			22개	155명	224명	144.5%	202명	90.2%			
총계			59개	525명	674명	128.4%	603명	89.5%			

※ 개설 목표 61개 프로그램 중 59개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과정인 「빅데이터활용 과정(춘천/홍천)」은 1개로 통합 운영
- 「로컬크리에이터 과정(춘천)」은 수강생 모집 미달로 개강 취소

3. 성과지표 달성 현황

■ 핵심성과지표

▶ 지표명 : 거버넌스 구축·운영 실적

지표명	기준값	목표값	달성값
거버넌스 구축·운영·협업 추진율	71.0%	81.0%	90.5%

▶ 지표명 : 특화분야 연계 교육과정 개편 실적

지표명	기준값	목표값	달성값
교육과정 개발·운영 성과	39.3%	45.9%	45.9%

▶ 지표명 :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실적

지표명	기준값	목표값	달성값
직업교육심화과정 이수율	84.4%	85.3%	88.7%

▶ 지표명 : 지역사회공헌 실적

지표명	기준값	목표값	달성값
고등직업거점지구사업 수혜자 만족도	80.6%	84%	88.9%

■ 자율성과지표

▶ 지표명 : 교육품질 성과지수

지표명	기준값	목표값	달성값
교육품질 성과지수	70%	80.5%	93.2%

▶ 지표명 : 직업교육심화&지역공헌 교육운영지수

지표명	기준값	목표값	달성값
직업교육심화&지역공헌 교육운영지수	96.1%	94.6%	113.5%

▶ 지표명 : 직업교육심화&지역공헌 교육참여지수

지표명	기준값	목표값	달성값
직업교육심화&지역공헌 교육운영지수	86.2%	90.2%	128.4%

▶ 지표명 : 산학협력 교육인프라 공유지수

지표명	기준값	목표값	달성값
산학협력 교육인프라 공유지수	-	80.5%	87.5%

4. 거버넌스기관 협업 현황

■ 거버넌스 운영 실적

1) 거버넌스 기관 업무 협약 : 총 4건 진행

- (주)코빈즈커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유동부치아바타

2) 컨소시엄 지자체 업무 협의 : 총 11회 진행

구분	회의일자	회의내용
춘천시	2022. 7. 6(수)	• 교육프로그램 타당성 검토, 타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및 향후 일정 논의
	2022. 8. 10(수)	• 2022년 춘천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2022. 11. 10(목)	• 2022년 수정사업계획 컨설팅 내용 분석 및 지역특화분야 관련 춘천시 정책
	2023. 1. 27(금)	• 2022년 HiVE사업 주요내용 및 운영 실적, 2023년 운영방안 및 협력사항 논의
홍천군	2022. 6. 21(화)	• 2022년 홍천군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2022. 7. 20(수)	• 레저전문가 인큐베이팅 관련 회의
	2022. 7. 21(목)	•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및 자율과제 세부운영계획
	2022. 7. 29(금)	• 2022 홍천 교육프로그램 장소 및 기자재 사용관련 논의
	2022. 10. 6(목)	• 2022년 교육프로그램 장소 사용 협의
	2023. 2. 23(목)	• 2023년 사업 공유, 사업 방향 및 추진계획 논의
지역협력위원회	2022. 12. 23(금)	• 춘천시/홍천군 협력 방안 모색 및 지역특화분야 특성화 방안

3) 거버넌스 기관 업무협의 : 총 10회 진행

거버넌스 기관명	회의일자	회의내용
취창업 협의회	2022. 8. 19(금)	• 청·장년 취창업 협의회 구축 및 지원 협력 방안 논의
(주)마음스쿨, (공공형)베르디움어린아침	2022. 10. 25(화)	• 자율과제(키즈케어코칭)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점검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2023. 1. 4(수)	• 2023년 운영방안 및 협력사항 논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23. 1. 5(목)	• 2023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주)유동부치아바타	2023. 1. 12(목)	• 2023년 자연힐링 Food & Coffee 분야 교육과정 운영 관련 계획 수립
한국 여성경영인 총협회	2023. 1. 18(수)	• 2023년 디지털미디어 콘텐츠분야 교육 진행 방향 논의 및 프로그램 계획 수립
한국 코딩교육 협동조합	2023. 1. 20(금)	• 상호 협력사업 도출 및 교육프로그램 관련 논의
(주)코빈즈 커피	2023. 2. 1(수)	• 2023년 자연힐링 Food & Coffee 분야 교육과정 운영관련 계획 세부 수립
(주)유동부치아바타	2023. 2. 1(수)	• 2023년 자연힐링 Food & Coffee 분야 교육과정 운영관련 계획 세부 수립
(주)마음스쿨	2023. 2. 1(수)	• 정주인력 양성에 맞춘 타켓형 프로그램 개설 논의

4) 2022년 HiVE사업 교육프로그램 강사간담회 : 총 3회 실시

- 교육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사항 논의, 차년도 교육 수요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등

5. 운영성과

■ 2022년 HiVE사업 교육수료자 취·창업 성과

• 취업자 : 8명

이름	근무처	직책	HiVE사업단 교육 이수과정
최영희	지혜의 숲	바리스타	춘천 시니어바리스타
황영진	홍천초등학교	안전요원	홍천 라이프가드
이덕순	소노펠리체CC	캐디	홍천 캐디양성
임승열	소노펠리체CC	캐디	홍천 캐디양성
박희찬	소노펠리체CC	캐디	홍천 캐디양성
신명자	동행육아사업단	육아코칭전문가	춘천 육아코칭전문가
원누리	재단법인홍천문화재단	직원	홍천 도시재생코디네이터
백유미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주말 근로자	춘천 지역특화 제빵 기초&심화

• 창업자 : 5명

이름	법인/상호명(직위)	HiVE사업단 교육 이수과정
변일영	사회적협동조합 티움연구소(사무국장)	홍천 도시재생코디네이터 교육
한송비	송비카페(대표)	춘천 지역특화 제빵 기초&심화
정주리	미소 아동·청소년 발달센터(대표)	홍천 부모상담교육전문가
허지선	창업지원 사업선정	홍천 디지털 커머스
전아정	2023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서류심사 통과	홍천 스마트한 사업제안서 작성

• 자격증 취득자 : 269명

지역	춘천	홍천
국가자격증	3명	2명
민간자격증	152명	112명

■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 교육 효과 극대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유사 교육과정의 통합 개편 및 심화과정 개설
- 교육생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시간 편성(직장인 참여 유도, 평일 교육 편성 등)
- 교육장소 확보 및 개선방안 마련(외부 교육장의 쾌적한 환경 및 우수 교육시설 확보)
- 교육 재료, 교보재 등의 공급방법 개선

6. HiVE사업단 향후 운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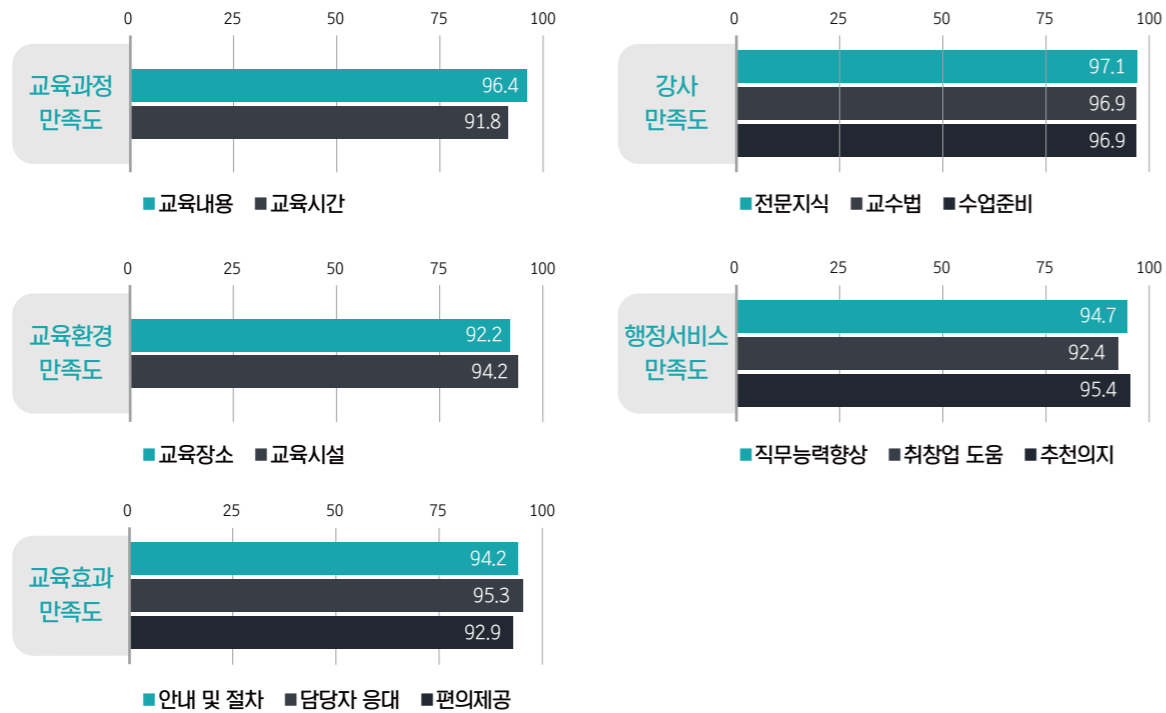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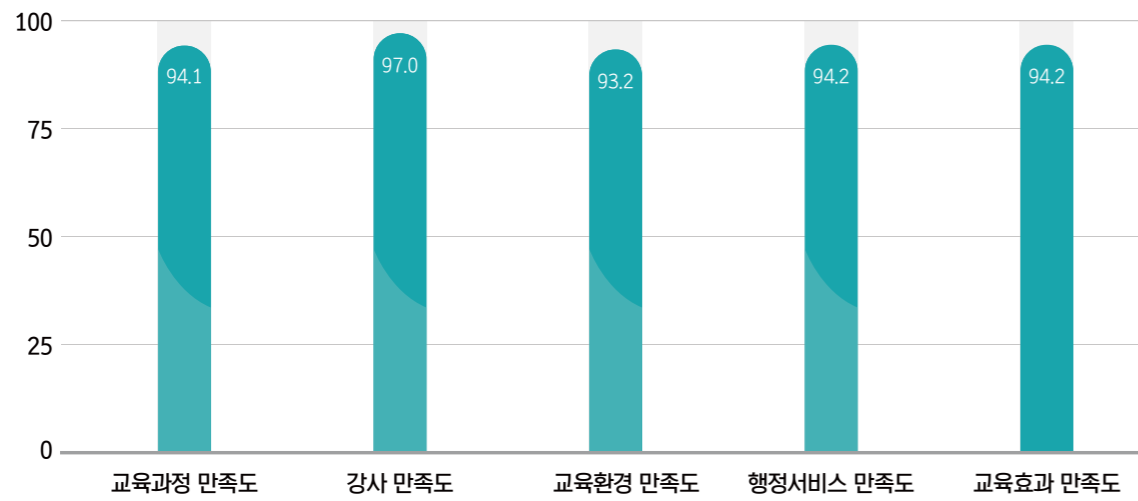
구분	항목	주요내용	
대외적 여건 변화	교육부 기초	• 지방 전문대학 교육부 정책 변화	• 지방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전문대 상생협력 강화
	HiVE사업 정책	• 사업 컨소시엄 수 증가 • 사업비 예산 증액	• 2022년 30개 컨소시엄 → 2023년 50개 컨소시엄 • 2022년 15억원 → 2023년 18억원 (3억원 증액 예정)
2023년 HiVE사업단 운영 방향	• 지자체-산업체-한림성심대 거버넌스 협력체제 강화	• 춘천시, 홍천군 각 부서와 연계·협업 추진 체계 확립 • 다양한 접점을 통한 협력 시너지 창출 ex> 지역협력위원회, 관산학 워크숍, 성과공유회, 자체평가회의, 사업분야별 거버넌스 회의, 지자체 행사 공동 참여 등	
	• 지역특화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 지역특화 평생직업교육의 성공적인 모델 정착을 위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설 ex> 유동부치아바타 협력 → 치아바타 전문 파티셰 양성 과정	
	• 지역특화분야 학과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	• 학과별 정규교육과정 및 비교과과정 운영 • 학생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학과 운영 내실화	
	• 성인학습친화형 학사체제 구축	• 지역 성인학습자들을 본교 입학자원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 수료자 입학시 가산점 제공 -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구축, 운영 ex> 선행학습인정제(RPL),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 지역 정주인력 양성을 위한 취·창업 협의체 활성화	• 교육 수료생 대상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ex> 취·창업 희망자 대상의 맞춤형 교육, 상담, 코칭, 멘토링 등	

7. 만족도조사 결과(자체)

■ 만족도조사 결과

2022년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대상 자체 만족도조사 결과 94점이 넘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수강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화교육 개설을 검토하는 등 한림성심대학교가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직업교육을 선도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음

• 만족도 점수(100점 척도) : 94.7점



CHAPTER IV

HI ! V E

교육프로그램 소개 및 수기

1. 자연힐링 Food&Coffee	30	5. 키즈케어 코칭	108
2.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62	6. 청장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116
3. IT융합 전문가 인큐베이팅	86	7. 시니어 헬스케어	118
4. 레저전문가 인큐베이팅	100	8. 친환경 마을공동체 조성	128



1

자연힐링 Food&Coffee

- 바리스타 전문가
- 파티쉐 전문가
- 지역특화 푸드



1. 자연힐링 Food&Coffee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



개요

- 카페 현장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모델 제시를 위한 바리스타 전문가 교육과정개발 및 바리스타 전문가 실습을 위한 기자재 구비를 포함한 실습 환경 구축
-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카페 음료 제조 교육 및 개발로 교육 수료 및 자격취득
- 만족도 분석 및 교육과정 보완을 통한 취·창업지원 및 교육과정 보완 및 고등직업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프로그램

- 커피바리스타
- 시니어바리스타
- 커피브루어

추진방법

- (사)한국커피협회 공동 홍보 및 모집
- 브랜드 전략 및 동기부여(Action Plan)
-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체 선정
- 콘텐츠에 대한 마케팅
-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 워크샵 개최
- 파티쉐 전문가 과정과의 연계성 분석 후 연계 교육 실시





바리스타 전문가

“먼 훗날, 나만의 카페를 열어 커피향을 나누렵니다”

커피 바리스타-김준한

평소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 가끔 홈페이지에 접속하곤 했다. 대개 간단한 취미과정이나 정보화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시간대도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우연찮게 HiVE사업 교육 프로그램 관련 공고를 보게 되었다. 여러 교육 프로그램 중 배우고 싶은 것을 고민한 끝에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다. 평소 미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커피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 15회 강의로 커피 바리스타 2급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어서 시험 준비를 위한 연습을 하기에다 빠듯했지만, 수강생들의 열정과 학구열로 매주 1번 있는 강의시간이 기다려졌다. 수강생들 대부분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들이었는데 결석 없이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한 주에 한 번 퇴근 후 교육을 듣고 나면 밤 9시가 넘는 시간이지만 한 번도 지루하거나 피곤했던 적이 없었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다. 지금도 첫 날이 기억이 난다. 여러 무리 중에 나 혼자 남성이었고 대부분 지인들과 함께 왔기에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강생들과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하게 되었고 정말 친한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 것처럼 매 교육마다 즐기면서 수업을 들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된 것도 행운이지만, 커피라는 공감대와 관심이 모두를 수업에 몰입하게 만든 것 같다.

처음에는 커피에 대해 잘 모르고 단지 마시기만 했기에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직접 커피를 추출하면서 몸으로 익히게 되어 카페의 바리스타가 된 것 마냥 능숙한 동작으로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때 보람과 환희를 느꼈다.

커피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게 되었으니 더 다양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다. 당장 내 가게를 가지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경험한 뒤에 직접 창업을 해보고 싶다. 선불리 시작하기 보다는 주변의 능력 있고 열정 있는 강사님들의 조언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고, 창업 관련하여 지원해주는 과정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까운 지인 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 창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다. 평소 커피를 잘 알거나 관련 사업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도움과 지원으로 괜찮은 상황에서 창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준비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한다. 창업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쉽지 않고 창업이 가능한 것만도 큰 능력이지만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커피와 창업에 관련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진정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적극 참여하고 싶고, 규모가 작더라도 커피 질과 공간 분위기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싶다.





바리스타 전문가

“ 커피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

커피 바리스타-홍인애

20년 동안 같은 일만 오래 하다 보니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역시 창업은 생각하면 할수록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만 쌓여갔다. 특히 나처럼 자본도 기술도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언제까지 현실에만 안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특히 집 주변에 큰 아파트 건물이 들어오는 호재가 생겨, 카페 창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기회가 되었다.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 터라 더 늦으면 나에게 창업의 꿈은 그냥 꿈에서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차츰 커지고 있었다.

사실 예전부터 커피와 카페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평소에도 지인들과 카페를 자주 가는 편이고, 나름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 커피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던 터였다.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욕심을 내보려 했지만, 내가 사는 홍천에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접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직장을 다니고 있던 터라, 저녁과 주말을 이용해 춘천을 나가는 것도 선뜻 내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HiVE사업 교육 프로그램에 홍천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처음 에스프레소 실습을 할 때와 카푸치노를 만들면서 동그란 모양을 만들 때가 기억에 남는다. 뭐든지 처음이 제일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첫 에스프레소 추출, 첫 카푸치노 만들기 특히 카푸치노는 모양을 내는 것이라 사진으로 찍어놓고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된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는데, 수업 때마다 배우길 잘했다며 스스로를 칭찬했다. 필기부터 실기까지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새로웠다. 머신에도 종류가 많고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도 엄청 다양하고, 커피 종류도 원산지에 따라 다르고 로스팅

시간에 따라 맛과 향도 달라지는 등 배우면 배울수록 무궁무진했고 앞으로의 커피 시장이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한 주 한 주 배우면서 ‘아,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광범위하고 쉽지 않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나를 자책하며 열심히 검색하며 찾아보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커피에 대해 알아갈수록 지인들과 카페를 갈 때도 맛과 향 또는 카페의 분위기나 인테리어 등등에 대해 나름의 평가도 생긴 것 같다.

카페를 가면 커피 원산지부터 확인하고 커피 음료에는 어떤 커피가 들어가는지, 함량은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하게 되었다. 어느 회사가, 어느 카페가 어떤 원두를 쓰는지도 알게 되었고, 아직 커피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커피에 대해 조금 아는구나 하며 뿌듯함을 느끼게도 되었다.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서도 활력소가 되리라 믿는다.

당장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막연한 꿈을 조금은 구체화했다는 것만 해도 큰 소득이었다. 마침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서 당장 커피 쪽으로 취업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조금씩 실무를 배워갈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는 커피문화가 대중적이어서 아르바이트를 뽑는 곳도 많이 있다. 나이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전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내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하이브 사업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



바리스타 전문가

“ 내 삶의 목표를 바꿔준 커피지도사의 길 ”

커피브루어-여미영

지역 신문을 통해 한림성심대학교와 홍천이 상생협력하여 HiVE사업 운영을 한다는 내용을 접했다. 40대 후반인 내가 다시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고 있던 터라 HiVE 교육에 참여하면 재취업이나 창업에 어떤 도움이라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모집 공지가 있기를 기다렸고, 교육생을 모집하는 공고에서 [커피브루어 과정-커피지도사 양성과정]에 유독 관심이 많이 갔다.

40대 중반부터 커피와 제과에 관심이 많아 카페를 차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수많은 카페 속에서 살아남을 경쟁력도 마련하지 못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창업하기에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이러저런 이유로 창업을 주저하던 나에게 커피와 관련하여 창업만이 길이 아닌 지도사라는 다른 길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첫 수업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모두들 처음 본 사람들이라 낯설어할 때 강사님이 주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긴장감이 해소되었다. 커피 한 잔의 원두는 평소 내가 즐겨 마시던 원두임을 바로 맞췄는데, 에스프레소 커피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맑음이 느껴져 맑고 깨끗하게 추출하는 기술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커피의 다양한 맛들은 추출조건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 다르게 연출된다. **커피는 많은 사람의 인생처럼 여러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획일화되지 않고 여러 감정들이 공존하는 것처럼 같은 원두라도 내리는 사람이 연출하는 조건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진다. “커피는 인생이다” 수업과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가압을 이용한 에스프레소 방식의 진한 커피를 즐겨 마셨다. 가끔 원두의 선택만 달리했을 뿐 추출방식 선택은 생각도 안해봤다. 하지만 지금은 상압방식의 드립 커피의 매력에 빠져버렸다. 원두의 로스팅에 따라 향이 다름을 알지 못했을 때는 다크로스팅이 맛있는 줄만 알았고, 샷 추가까지 하면서 진한 커피를 즐겨왔다. 수업을 들은 후에는 달콤구수와 신맛, 쓴맛, 향 등 모든 것이 동시에 연출되는 커피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추출도구를 선택해가며 커피를 마시고 있다. 나는 수업 중에 해본 여러 실험을 통해 내게 가장 맛있는 커피 추출방식인 ‘되부어뽑기’를 익혔고, 종이컵을 이용한 추출방식, 접해보지 못했던 모카포트, 사이폰, 체즈베 커피 만드는 방법을 배우며 세상 커피 만드는 일이 이렇게 새롭고 매력적이며 즐기면서 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커피브루어 과정을 학습하는 동안 커피지도사가 갖추어야할 지식과 경험을 열심히 습득했다. 교육을 마치고도 아직 커피지도사로서 커피브루어에 대해 강의를 하는 일은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심화과정이 개설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2023년 9월 오픈을 앞두고 있는 홍천군 갈마곡리 도서관에서 ‘맛있는 인생, 커피핸드드립에 빠지다’라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내가 강의를 했으면 하는 희망까지 품어본다. 내가 아니더라도 이번 1기 교육생 중 누군가 관련 강좌를 개설한다면 응원을 해줄 것이다.





바리스타 전문가

“ 무엇이든 아는 것이 힘,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다 ”

시니어 바리스타-이병주

나이를 많이 먹어 어느덧 62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몸이 건강하고 가슴이 뛰며 무엇을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던 차에 한림성심대학교 하이브사업단에서 [시니어 바리스타 과정]이 개설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카페에서 젊은 사람들이 상냥한 얼굴로 커피를 주문받고 능숙하게 커피를 내려주는 모습을 보며 빛나는 젊음이 참으로 부러웠는데, 내 나이가 되어서도 바리스타 과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당장 등록하게 되었다.

우리 시대에는 다방 커피만 있어서 어렵게 영어로 된 요즘 커피를 주문할 때 사실 속으로 조금 떨리고 궁금증이 있었는데,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면 그런 궁금증도 사라지고 전문적으로 커피에 대해 배운다니 강좌 개설일이 기다려지며 설레기도 했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같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다가왔다. 새로운 친분도 맺고 정말 열심히 배워 자격증도 따고, 만약 일자리가 있다면 조금씩 경험을 쌓아 다시 사회에 나가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아르바이트를 경험삼아 내 카페를 운영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을 받으며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커피가 추출되어 나오고 따뜻한 우유거품이 만들어지는 일들은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처음 카푸치노 만드는 법을 배우고 맛을 보았을 때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마셨던 비엔나커피 맛이 나서 신기했다.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이 그렇게 다양한 지도 처음 알게 되었고, 좋은 커피일수록 카페인이 적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강의를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항상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여 집에 가는 시간 동안 반복해 들으며 내용을 되새길 정도로 열심히 했다. 그 덕분인지 필기시험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점수도 100점을 받아서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었고 성취감과 보람도 많이 느꼈다. 늦은 나이에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예전에는 카페에 가면 커피 용어를 몰라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등만 고집했는데, 이제는 자신감 있게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고 무슨 커피인지 이해하게 되어 마치 문맹이 한글을 깨우친 것처럼 속이 뽕 뚫리는 기분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역시 커피든 뭐든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춘천 시보나 알바천국 등 취업 플랫폼에 수시로 접속하여 시니어 바리스타 모집 공고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일단은 아르바이트로 바리스타에 취업하여 경험을 쌓아보고 싶은 것이 꿈이다. 카페 운영과 커피 제조, 손님 응대 등 커피전문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한림성심대학교 하이브사업단에서 카페 창업 운영 및 경영에 관한 과정이 개설된다면 또 참여해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은 마음도 있다. 끝으로 이런 과정을 개설해주신 하이브사업단 임직원 일동 여러분, 그리고 저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바리스타 전문가

“ 멋진 바리스타가 되어 좋은 커피를 건네주고 싶습니다 ”

시니어 바리스타-김일근

31년 동안 한 직장을 다니다 정년퇴직 후 흥천으로 귀촌을 한 도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지역민과의 융화와 화합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봉사 그리고 참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 직장 업무에 매진하면서도 17년간을 지역 대학에 출강을 병행했고, 관련 대학의 평생 교육원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강좌를 듣는 시민들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과 누구나 주어진 긴 인생에서 배움의 선택은 끊임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던 중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의 일환으로 흥천 교육 과정 수강생을 위해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 관심분야였던 [시니어 바리스타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고 그로 인해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재능기부 및 취(창)업도 가능한 기초를 스스로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느끼는 맛 중에 요즘 각광받는 것은 쓴맛이고 단맛은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커피는 전 세계인에게 쓴맛을 제공하면서도 문화와 감동을 주는 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와 기호의 폭발성은 가히 세계 선두권이다. 그런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교수진들이 우리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이론과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실습과 매장관리, 서빙 예절과 일반적 커피 역사, 그리고 우아한 시음 등을 알려줬다. 15주 교육과정에 지루함이 있을 수 없었고 매주 기대감으로 교육시간을 기다렸다. 교육생들도 열심히 수업을 따르고 협동과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즐거움과 기대를 내비치는 모습 등이 너무나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교육 중 자격증 프로그램에서 15분간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만들기 시연과 연습은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어 각 과정에서 완벽한 재연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커피의 충분한 맛과 향 그리고 문화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번에 배운 바리스타 교육내용을 잘 복기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변 지역과 내 삶에 공유하여 행복해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커피는 마시기 위함도 있지만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최고급 원두를 선택하여 좋은 맛과 향을 만들면서 청결하게 준비해 서빙하고 편안한 미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생님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의 취업과 창업에 있어 여러 여건이 불확실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시니어 은퇴자의 여건에 있어서도 고려할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바리스타와 연결되는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연결고리로 생각하고 추가 교육을 받아 많은 경쟁력을 갖추어보고 싶다. 일단은 지역 사회에서 봉사와 실습을 하면서 익힌 기술들을 유지할 생각이다. 이번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은 앞으로 다가올 즐거운 생활을 맞이하는 준비였다고 생각한다.





1. 자연힐링 Food&Coffee

파티쉐 전문가 과정



개요

- 카페 현장 맞춤형 고등직업교육 모델 제시를 위한 파티쉐 전문가 교육과정개발 및 파티쉐 전문가 실습을 위한 기자재 구비를 포함 실습 환경 구축
-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카페 음료와 어울리는 카페 푸드 메뉴 제조 교육 및 개발로 교육 수료 및 자격취득
- 만족도 분석 및 교육과정 보안을 통한 취·창업지원 및 교육과정 보완 및 고등직업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프로그램

- 지역특화 제빵
- 천연발효&건강빵
- 베이커리 창업 트렌드

추진방법

- (주)유동부치아바타 공동 홍보 및 모집
- 브랜드 전략 및 동기부여(Action Plan)
- 지속적인 모니터링 산업체 선정
- 콘텐츠에 대하여 마케팅
- 파티쉐 전문가 과정 실제 참여 수강생 중심으로 재직 산업체 만족도 분석 실시
- 파티쉐 전문가 과정 워크샵 개최
-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과의 연계성 분석 후 연계 교육 실시

단계별 계획



파티쉐 전문가

“ 원두가 커피 한 잔이 되기까지, 내가 창업의 희망을 완성하기까지 ”

베이커리카페 창업 트렌드-임진아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가 증가하고 식생활 변화에 따라 빵 소비도 늘어나면서 국내 카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속에서 카페 창업이 증가하면서 폐점을 또한 높은 것이 현실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과 초보 창업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덜 겪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HiVE 사업 교육프로그램을 보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다. 내가 참여한 [베이커리카페 창업 트렌드과정]을 통해 최근 창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다. 나아가 창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교육은 크게 커피와 베이커리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현직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가 철저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해주셨고, ‘코빈즈’라는 현재 운영 중인 카페 사장님과 스텝분들의 부족함 없는 수업준비로 매주 기대를 안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실습을 통해 카페업무를 체험할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원두가 커피 한잔이 되기까지 원두를 고르고 여러 방식으로 추출해 보고 그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 베이킹 재료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빵을 완성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과 노력이 필요한지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창업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다. 우리나라 카페 산업은 그 흐름이

빠르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장이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브랜드와 다른 매장과의 차별화가 필수적이고, 철저한 준비와 공부가 필요하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커피와 베이커리의 수요 증가 전망은 창업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나의 SWOT 분석하는 시간을 통해, 미래 사장인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게 창업을 설계해 볼 수 있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시작을 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베이커리카페 창업 트렌드과정]을 통해 나의 부족한 점과 앞으로 필요한 점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씩 배워 나갈 생각이다. 또한 큰 틀의 창업설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권분석과 고객의 기호에 따른 선호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시간도 가질 생각이다.

창업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기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전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통해 느꼈던 과정의 즐거움을 되새기며 포기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파티쉐 전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빵을 만들어볼까?”

지역특화 제빵-조경민

오래 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작은 호기심으로 제빵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제빵을 너무 쉽게 본 탓일까? 빵을 구워 봐도 빵의 형태와 맛이랑곤 할 수 없는 무언가만 계속 나왔다. 이러한 이유로 잠시 제빵과 멀리하다 한림성심대학교 HiVE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지역특화 제빵 과정]을 발견하게 되었다. 진입장벽을 느껴 잠깐 멀리했던 제빵의 꿈을, 다시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바로 신청했다.

첫 수업인 발효! 그 한 수업에서 내가 왜, 무엇을 틀렸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발효를 하는 과정은 마치 인생을 닮았는데, 나는 그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제빵은 인생처럼 과정이 있다. 재료들을 섞는 믹싱, 부풀 수 있게 도와주는 발효, 그리고 빵으로 완성시키는 굽기 단계가 있다. 인생에도 중요한 시기인 유년기, 청년기, 중년기가 있는 것처럼! 믹싱을 할 때는 모든 재료를 기계나 손으로 섞어 준다. 이때는 물의 온도, 환경의 습도, 재료의 배합이 중요하다. 믹싱은 성장하고 아직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유년기를 닮아있다. 굽기는 빵으로 완성되는 과정으로, 수십 년간 이루어내고자 노력한 결실을 맺는 중년기를 닮아있다.

나는 발효 과정이 지금 내 나이인 청년기라고 느껴졌다. 발효는 이스트의 도움을 받아 일어난다. 특정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면 이스트는 그 환경에 맞게 발효를 한다. 이로운 발효가 될 수도, 해로운 발효가 일어날 수도 있다. 청년기 또한 그렇다. 맞닥뜨리는 환경을 제어해 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혼자 고군분투해야하는 시기다. 이때 노출된 환경과 경험을 통해

이로운 사람 혹은 해로운 사람이 된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 어떤 빵이 되는지가 인생의 청년기와 닮았다. 발효가 잘되어야 반죽을 구웠을 때 좋은 빵이 나온다. 이처럼 꿈을 위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청년기를 가졌을 때 그것을 이루어 내는 중년기가 온다. 그래서 매시간 반죽을 발효하는 시간에는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들곤 했다.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

내향적인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때문에 교육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망설임도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색함, 불편함이 싫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초반에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었다. 각자 본인 자리에서 만드는 데 열중하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고, 교육 막바지에 접어들자 제빵이 익숙해짐에 따라 서로 친해지고 도와주며 교육에 임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지레 겁먹고 걱정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다.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제빵도 배우고, 좋은 인연들을 만들고, 내향적인 성격도 고쳐 나갈 수 있었다. 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것 역시 빵과 닮아있었다.내가 혼자서 제빵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기술적 어려움의 벽에 막혀 정체되어 있었지만, HiVE 사업의 [지역특화 제빵 과정]을 통해 이겨내어 한발 더 나아갔다. 내가 교육을 신청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줬던 분들을 생각하며 처음과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는 열정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보람을 원동력삼아 카페창업이라는 목표에 매진하겠다.



파티쉐 전문가

“ 흥천 특산물을 이용한 저만의 베이커리에 찾아주세요! ”

지역특화 제빵 기초-원누리

2022년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한해였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재직하면서 지내는 것도 전체 인생을 바라보자면 순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퇴사 이후를 고민하고 새로운 인생에 대하여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던 중, 우연히 HiVE사업단에서 하는 창업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신문을 보게 되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라는 이름답게 사업의 내용들이 전부 실용적이고 창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프로그램을 천천히 살펴던 중 내가 관심 있는 제빵 과정이 바로 눈에 들어왔다. 예전부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빵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빵 기초과정이 그 시작을 열어줄 거 같았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기대대로 HiVE 사업은 나에게 미래로 향하는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었다. 교육을 통해 향후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빵을 만들어 파는 베이커리를 오픈하고 싶다는 큰 꿈도 꿀 수 있었다.

제빵을 배웠던 과정 전체가 새록새록 기억난다. 처음 제빵 기초과정의 수업을 들을 때 제빵 반죽기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해 힘들었다. 왼쪽을 끼웠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이 걸돌고, 분명 다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덜 올라가서 반죽이 덜 되고 있었다. 또 공정 과정에서 빵 겉의 토핑을 생각보다 많이 발라서 오븐 안에서 흐르고 타서 연기가 났던 적도 있었다. 오븐에서 연기가 나다보니 ‘와, 이 빵은 망쳤구나’ 생각했는데

결과물이 너무 훌륭하고 맛있어서 행복한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공정들을 다 같이 배우다 보니 이런저런 해프닝들도 즐겁고 계속 기억에 남는다.

초반에는 정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내가 너무 꿈만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했지만, 제빵 기초과정을 진행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도 차츰 생기기 시작했다.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너무 재미있다고 느꼈고,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보면서 내가 이것 만들었다니 하고 부듯해했다.** 공정과정을 배우면서는 나중에 이 기본과 결합해서 다른 빵도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을 HiVE를 통해 내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무척 감사하다.

현재는 기초과정을 통해 어떤 공정 과정이 제빵에서 이루어지는지와 어떤 빵들이 흥천 특산물들과 어우러지기 쉬운지 배웠지만, 이제 다른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제빵 기술을 갖고 닦아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싶다.

특히 HiVE 사업에서 진행하고 알려주는 정보와 교육들을 잘 받아 창업을 위한 길을 단단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흥천 지역에 오면 꼭 들려야하는 베이커리를 만들고 싶다.



파티쉐 전문가

“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따뜻하고 맛있는 빵집을 그려봅니다 ”

지역특화 제빵 심화-성수미

2년 남짓 남은 남편의 정년퇴직과 곧 다가올 나의 퇴직으로 인해 노년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던 즈음에 지인이 건네준 HiVE 사업 프로그램 팸플릿을 보았다. 수강료, 교육재료비, 자격증 응시료 및 발급비까지 교육비 전액이 국비지원이라니!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신청자 우선선발 순위 기준 1순위가 ‘교육수료 후 취업 및 창업희망자’였기에 더 유심히 살피게 되었다. 가장 눈길이 가는 수업은 [지역특화 제빵] 수업이었다. 별명이 ‘빵순이’였을 만큼 빵을 좋아하는 나였기에 “웁다구나! 이 수업을 들어 제빵기능사에 도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추후 남편과 함께 창업하여 같이 노후를 준비하면 어떨까”하는 강한 욕구가 생겼다. 특히 [지역특화 제빵]은 프랜차이즈로 넘쳐나고 있는 요즘 빵집들과는 차별성이 확실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받으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4시간의 제빵수업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설렘이 가득했다. 한림성심대학교 조리 실습실에 도착하면 행복의 시작이었다. 제빵의 제조공정은 재료개량 후 믹싱, 1차 발효, 분할, 둥글리기, 성형, 팬닝, 2차 발효, 굽기, 냉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 중 나는 둥글리기를 할 때가 가장 기다려졌다. 밀가루가 여러 가지 재료와 섞여 발효를 끝내고 분할 후 손안에서 부들부들,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지는 감촉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을 느끼게 했다. 수업 초기에는 둥글리기를 할 생각에 제빵 개량제 중량을 잘못 측정하는 바람에 다른 학생들과 달리 발효가 끝나고 표준크기에 도달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제품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할까봐 속상해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실수상황도 앞으로 빵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하시며 표준크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대처를 알려주셨고, 수업 마감시간이 지나서까지 제품이 잘 완성되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교수님의 특별한 지도 덕분에 맛있고 모양도 좋은 제품을 완성할 수 있었고, 이후 재료개량은 확인에 확인을 더하여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게 되었다.

제빵기능사 초급 과정부터 고급 과정, 지역특화 제빵 과정을 통해 약 25가지의 빵을 만들어 보았다. 이제 빵집에 가면 빵 맛의 궁금증보다 빵의 제조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된다. 3개월에 걸친 제빵수업이 준 변화다.

만든 빵들을 지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쁨도 있었다. 3개월간 갓 구운 빵을 맛보는 행복함과 지인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더불어 HiVE 사업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지인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전도사가 되었다.

현재는 제빵기능사 자격증 1차 필기를 합격하고, 2차 실기 시험을 준비 중이다. 남편에게도 다음에 있을 HiVE 사업 지역특화 제빵 과정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혼자가 아닌 부부가 제빵에 관심을 가지고 창업하면 서로 의지가 되고 좋을 것 같다.

내가 만든 빵을 맛 본 지인들이 ‘MI BAKERY’라고 벌써 가게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지역특화 제빵 몇 가지 제품만 전문적으로 준비해 볼 생각이다. 아직은 구상단계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MI BAKERY’에서 빵을 구울 나 자신을 상상해보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파티쉐 전문가

“ 빵을 사먹기만 했던 내가 빵을 만들어 나눌 수 있게 되기까지 ”

지역특화 제빵 심화-조광우

직장에서 쉬는 시간 중에 우연히 홍천 지역 신문을 보게 되었다. ‘국비지원 교육’ 이란 기사가 눈을 번쩍이게 하여 흥미를 가지고 자세히 보았다.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 교육프로그램과의 만남이었다. [지역특화 제빵 기초과정]을 보니 마침 교육시간이 근무를 마치고서 수강이 가능할 것 같았고, 특유의 교육광 기질이 작동되어 “이거 참여해야겠다”라고 외쳤다. 그런데 ‘지원완료’ 라고 쓰여 있어 바로 전화를 걸어 교육 상담을 해보니 “신청자가 많아 마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만 대기자 명단에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부탁과 함께 전화번호, 이름을 알려줬다. 그 때는 “큰 기대는 하지말라”는 소리가 조금 서운하게 들렸다. 못내 아쉬움 속에 포기 상태로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기쁜 전화를 받게 되었다. “전 신청자가 일이 생겨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하여 그 자리에 귀하가 선정되는 행운을 가지게 되었다”며 안내를 해주었다.

그렇게 인연이 된 교육을 받으면서 매년 흥미로운 시간을 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행해온 것 같다. 계량하고 반죽하고 숙성하고 둥굴리고 모양 잡는 과정들이 모두 재미있었던 것 같다. 교육시간 전 오늘은 어떤 빵을 만들까 궁금해지고 교습실 문을 열면 눈에 보이는 강사님과 동기생들의 얼굴이 참 보기 좋았다. 강사님이 “오늘은 00빵을 만들거예요”라고 얘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교재를 펴서 내용을 보고 “너는 예쁘게 생겼구나. 맛도 좋겠네~”라고 외치며 입맛을 다시던 생각이 난다. 강사님의 손놀림을 놓칠세라 열심히 동영상을 찍고, 그 과정을 몸으로 습득하고자 직접 손으로 만지고 형상을 만들고 숙성하고 굽는 동안 풍겨 나오는 맛있는 냄새에 신경이 예민해지곤 했다. 얼른 꺼내 맛을

보고 싶었던 시간들이었다.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 형상을 즐감하고 그 맛까지 보니 내 자신에 대해 대견함을 느끼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가지게 됐다. 이제껏 좋아하는 빵을 빵집에서 사먹으며 늘 “집에서 직접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졌었는데,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음은 물론, 우리 식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맛을 보여줬으면 하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전반기 인생에서 오랫동안 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해왔고, 좋아하는 빵에 대해 우선적 소비자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마음도 생겼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머지 생을 함께 하는 것도 보람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는 제빵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경기도 남양주 쪽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친척집에서 빵 제조, 점포운영 노하우, 재료수급 등 창업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체득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사전 연수 겸 정밀 교육을 다시 받아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 귀중한 빵 제조 과정들을 잊지 않도록 교재에 빼곡히 적어 놔던 것들이 소중한 자산이 되어 좋은 지침서로 남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교육 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면 실제로 많이 만들어봐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잊지 않고, 더 많이 만들어보고 배워서 준비를 잘해 작게라도 창업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파티쉐 전문가

“제가 만들 건강한 핫도그를 기대해주세요!”

천연발효 & 건강빵-최현주

천연발효를 통해 건강한 빵을 만들 수 있는 수업과정을 선택했다. 사실 천연발효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빵이 나의 몸에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되는지도 몰랐다. 일전에 가까운 지인이 빵이나 쿠키를 굽는 걸 본적이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들어가는 설탕 용량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보고 과연 사먹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까 생각했다. 더 무서운 건 그렇게 많이 넣어도 단맛은 많이 나지 않으니, 당뇨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은 것이 빵이나 쿠키였다. 그래서 천연발효를 이용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 HiVE사업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다른 걱정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우연히 치아바타 샌드위치를 먹어본 적이 있다. 그 전까지 먹었던 샌드위치는 한 번 먹은 후 크게 생각나지 않았는데, 이 샌드위치는 먹고 나서도 속이 편안하게 느껴져 신기했다. 물론 맛도 좋아서 그 가게를 다시 방문해 가끔 사먹고는 한다. 처음 먹을 때 당시에는 치아바타가 천연발효로 만들어진 줄 몰랐지만, 나중에 천연발효로 만들었기에 먹고 나서도 속이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도 맛있고 속도 편한 그런 빵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발효를 하는 장 또한 묵혀야 맛있다고 하는데 천연발효과정을 거치는 건강빵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빵 반죽을 그렇게 오랜 시간 발효시키는 줄 몰랐다. 빵을 만드는 과정 중 발효과정이 거의 대부분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효로 시작해서 발효로 끝나는 빵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반죽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르방이라는 천연발효종 또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공들여 만들어진 반죽이 발효 과정을 거쳐 유익균이 생성되며, 유익균이 많이 생긴

반죽을 빵으로 만들어 먹었을 때 우리 몸속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환자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이 되는 것이다.

반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손으로 만져보며 반죽의 진행 상태를 알 수 있었고, 얼마나 더 시간과 공을 들여야 원하는 반죽을 얻을 수 있는지도 배웠다. 좋은 반죽을 만들기 위한 공간과 시간, 날씨 등등 여러 요인들이 잘 맞아야만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반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반죽 성형을 통해서도 접는 횟수에 따라 빵의 탄력성이 달라지며 다양한 모양을 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교육을 마친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무도 좋아하는 핫도그를 좀 더 맛있고 가볍게 만들어, 먹고 나면 다시 생각나는 건강한 핫도그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다. 핫도그 반죽도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지만 먹고 나서는 편안함이 없다. 굽는 것이 아니라 튀기는 것이기에 과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천연발효를 잘 활용한다면 건강한 핫도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직접 만든 천연발효종 르방을 이용해 핫도그 반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과연 핫도그 반죽으로 적당한가는 많은 연습을 통해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반죽을 튀겼을 때의 상태도 알아봐야하고, 핫도그로 만들었을 때 르방에서 나는 신맛도 핫도그 맛으로 괜찮은지 알아봐야한다. 그렇게 기본 핫도그 반죽을 완성하게 된다면 핫도그와 어울릴만한 지역 특산물을 찾아서 지역특화상품으로 핫도그 창업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1. 자연힐링 Food&Coffee

지역특화 푸드 과정



개요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맞춤형 고등직업교육 모델 제시를 위한 지역특화 푸드 이론 교육 실습 환경 구축
-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지역특화 작물 소재 푸드 메뉴 제조 교육 및 개발로 교육 수료 및 자격취득
- 만족도 분석 및 교육과정 보완을 통한 취·창업지원 및 교육과정 보완 및 고등직업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프로그램

- 로컬 수제맥주제조 과정
 - 교육목표
 - 효모와 발효로 이루어진 맥주의 역사 이해
 - 수제 맥주의 다양한 스타일 이해
 - 누구나 직접 맥주를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수제 맥주 관련 정보 이해
- 디저트 마스터 과정
 - 교육목표
 - 제과의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다양한 응용 제품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능력 습득
 - 고객 니즈를 반영한 디저트 과정을 통해 제과제빵의 현장 실무 기술 습득

기대효과

- 연도별 추진전략에 따라 역할을 수행
- 맞춤형 평생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개설·운영을 통해 다양한 학습자 발굴 및 지원
- 취약계층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사회통합의 기능의 향상

추진방법

- 브랜드 전략 및 동기부여(Action Plan)
- 콘텐츠에 대하여 마케팅
- 지속적인 모니터링 산업체 선정
- 참여 수강생 중심으로 재직 산업체 만족도 분석 실시
- 전문가 과정 워크샵 개최
-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과의 연계성 분석 후 연계 교육 실시



지역특화 푸드

“감자로 만드는 새로운 디저트를 맛보여 드릴게요”

디저트 마스터-고석호

최근 추천에서 가장 핫한 것을 뽑으라면, 역시 감자빵이다.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맛도 모양도 감자와 비슷한 이 빵은 닭갈비와 막국수 밖에 없던 추천을 바꾸었고, 얼마 전 대형 프렌차이즈 베이커리에서 카피해서 큰 문제가 되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 그리고 항상 줄이 길게 서있는 감자빵집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항상 창업을 꿈꾸고 있었기에, 나도 내 가게 앞에 내가 만든 빵을 따뜻한 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이 서 있는 꿈을 항상 꾸곤 했기 때문이다.

항상 좋은 커리큘럼과 좋은 강사진이 있는 강의를 찾던 중에, 한림성심대학교에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진행되는 HiVE사업 프로그램에서 디저트 수업을 두 달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매주 월, 화라는 짧은 시간에 배우는 수업이라서 큰 기대를 하지 않기도 했지만, 차라리 처음에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디저트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 더 좋고, 이를 발판 삼아 더 큰 세계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설렘이 가득했다.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고 나서는 시간이 금방 지나갈 정도로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원래는 수업을 통해 디저트를 잠깐 맛보는 정도겠지 라는 작은 기대만 있었지만, 체계적이고 좋은 수업 내용을 배워서 디저트라는 세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앞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매 수업시간에 다양한 빵과 디저트를 만든 시간들은 흥미로운 기억으로 남았다. 노란색으로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콘브레드는 옥수수의 고소한 맛과 모양이 옥수수를 그대로 재연한 듯해서 재밌었고, 프랑스에서 먹는 대표 디저트 피낭시에는 프랑스 전통 디저트도 공부하면서 흔하지 않은 맛과 풍미를 즐길

수 있어 일품이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에그타르트를 이전부터 늘 배워보고 싶었는데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는 쉬운 레시피를 알려주어 큰 도움이 되었고, 교육 과정동안 가장 맛있었던 쿠키와 마들렌 등 버터의 풍미를 잘 느끼게 해주는 고소한 디저트들을 맛보는 일도 즐거웠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공부는 반죽이었다. 손으로 반죽하는 법까지 직접 알려주셨는데, 빵은 역시나 밀가루의 예술임을 알게 됐다. 밀가루를 얼마나 반죽하느냐가 빵의 질감에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게 직접 만든 디저트는 시중에 파는 것과 다르게 달지 않은 건강함과 좋은 재료에서 느껴지는 풍미, 특히 버터의 향이 가득해 좋았다.

2달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동안 디저트의 세계를 맛보고 수료증을 받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 디저트를 하나씩 만들어보면서 멀기만 했던 베이커리와 카페 창업의 길이 눈앞에 번뜩이게 다가왔다. 미래에 다른 도전을 향한 계기가 되어준 시간이었다.

디저트 마스터라는 수업 이름처럼 디저트를 직접 만들고 응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간이었고, 단순한 카페 창업에 머물지 않고 감자빵처럼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해 특성과 개성이 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새로운 감자빵을 만드는 상품 개발을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Try Again ?

GAME OVER

METAVERSE

Try Again ?

2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 디지털 콘텐츠

· 지역특화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2.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과정



개요

-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코딩 지도사, 융복합 IoT 콘텐츠, VR/AR 콘텐츠, 패키지 및 로고디자인 제작, 제품입체화 3D 모델링, 스마트폰 콘텐츠 제작, 영상촬영 및 편집, 사운드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전문가 교육과정개발 및 실습을 위한 기자재 구비를 포함 실습 환경 구축
-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교육 및 개발로 교육이수 및 자격취득
-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실감형 3D 콘텐츠 제작 교육 및 개발로 교육이수 및 자격취득
- 만족도 분석 및 교육과정 보안을 통한 취·창업지원 및 교육과정 보완 및 고등직업교육 프로그램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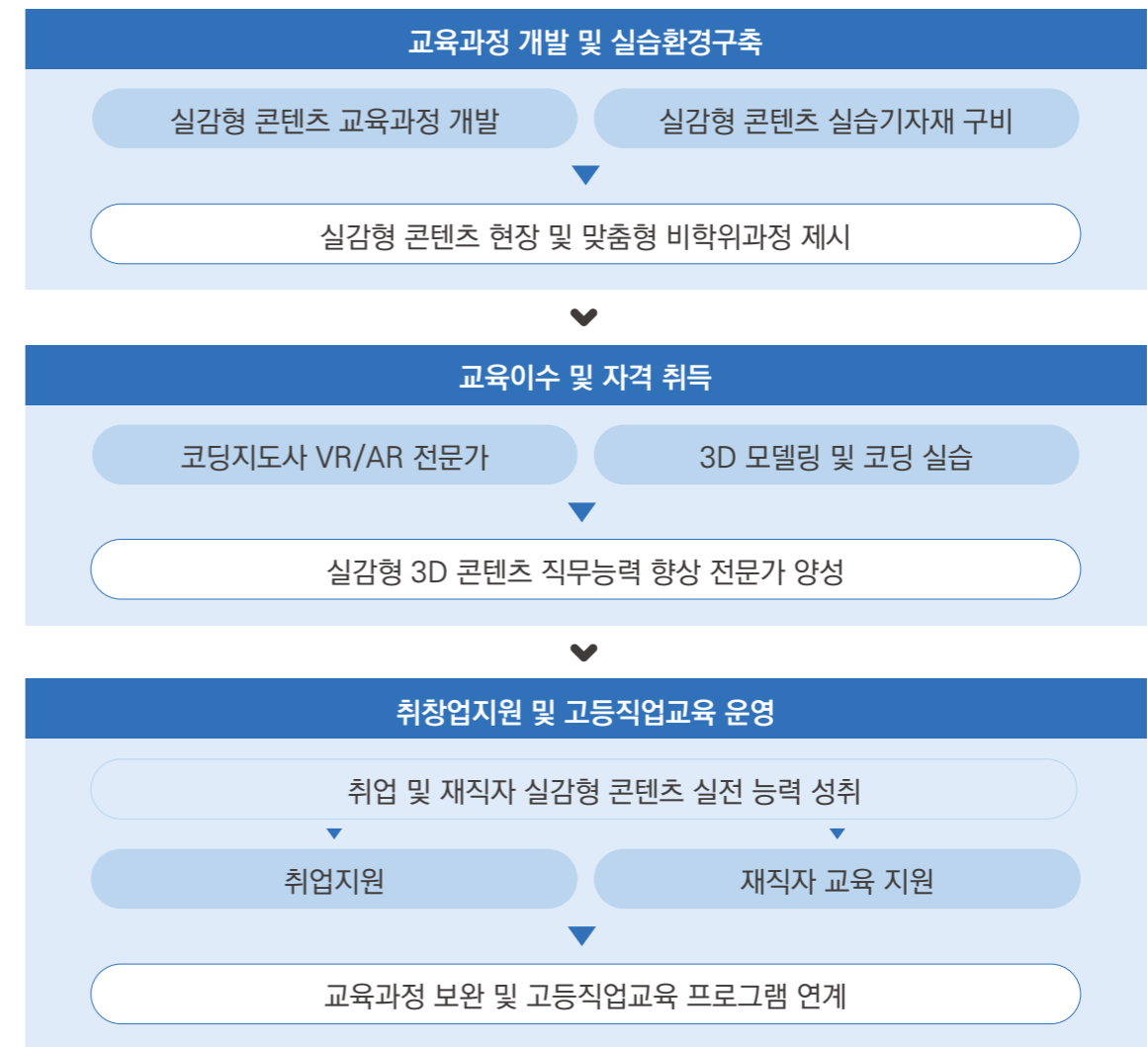
운영프로그램

- 코딩지도사
- 융복합 IoT콘텐츠 제작
- VR/AR콘텐츠전문가
- 패키지 및 로고디자인 제작
- 제품입체화 모델링 제작
- 스마트폰 콘텐츠 제작
- 영상촬영 및 편집
- 사운드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추진방법

- 춘천시·홍천군 공동 홍보 및 모집
- 브랜드 전략 및 동기부여(Action Plan)
- 지속적인 모니터링 산업체 선정
- 콘텐츠에 대하여 마케팅
- 교육 과정 실제 참여 수강생 중심으로 재직 산업체 만족도 분석 실시

단계별 계획



디지털 콘텐츠

“학생들이 바라는 코딩 교육으로 미래를 열겠습니다”

융복합 IoT 콘텐츠 제작-김은지

지인의 소개로 HIVE사업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 긴 기간의 수업이 부담되기도 했지만,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다. 수업시간도 길고 진행기간도 길어 나에 대한 도전의 마음이었다. 내가 과연 이 수업을 무사히 수료할 수 있을지, 나의 끈기와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반쯤은 있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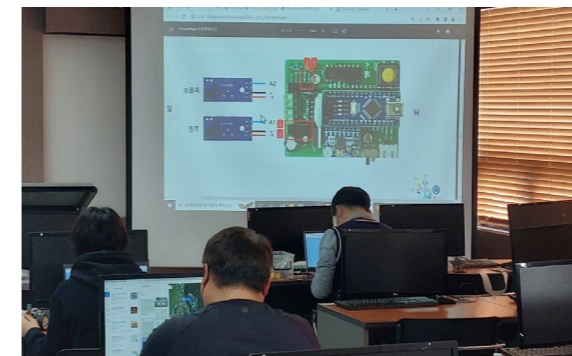
코딩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순수 코딩에 대한 내용을 주로 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두이노나 IoT (사물인터넷)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했다. 잘 수료한다면 모자란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회로 보였다.

수업을 받으면서 수강생들이 스스로 연구를 통해 알아온 사실을 서로 공유하던 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수강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 같은 내용을 배웠음에도 서로 본인의 관심 분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분야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는 수강생분도 계셨다. 그렇게 알게 된 지식들을 다음 수업에서 직접 강사가 되어 다른 수강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공유하고는 했다. 이렇듯 시너지 효과를 얻으며, 나도 내가 아는 분야의 내용을 공유해 함께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강사님의 수준 높은 강의도 컸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열정적이고 실력 있는 수강생분들과 함께하여 더 다양한 내용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더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적용하며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다 많이 알게 되었다.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럽게 하드웨어(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던 나였지만, 교육을 통해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아두이노를 통한 기초 회로 제어와 사용해보지 못한 다양한 센서와 부품들의 사용 방법, 회로도 읽는 방법이나 스스로 터득하기에는 무리가 있던 하드웨어 제어 방법 등의 내용을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주는 강사님 덕분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수강생들의 열정적인 태도를 통해 성실함을 배웠다. 이 분야를 전공으로 다루는 분들이 아님에도 학구열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게 되니, 스스로의 게으름에 대한 반성과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꼭 수업이 아니더라도 새로 무언가를 배우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용기를 받은 것 같다.

앞으로는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강사 활동에 반영하고자 한다. 다양한 부품들을 사용해 보았으니, 어떤 방법으로 확장이 가능할지 연구도 해보고 학생들과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부품의 사용 용도나 적합한 활용법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다’, ‘코딩교육 붐이다’ 하며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켜줄 인력은 아직 부족한 상태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주변의 환경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아쉬운 상황이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내 지식을 함께 나누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식지 않도록 유지시켜줄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싶다.



디지털 콘텐츠

“ 나의 한계를 넘기 위한 도전은 계속 됩니다! ”

융복합 IoT 콘텐츠 제작-함덕호

주말에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지만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고민만 하는 지루한 일상을 꽤 오래 보내고 있었다. 평생 직업이란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쟁사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장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고, 배워나가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춘천교차로>에 실린 ‘한림성심대학교에서 교육받는 HiVE 사업교육’을 보게 되었다. 우선 한림성심대라는 브랜드에 신뢰가 갔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니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어, 나에게 맞는 강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한 과목 말고 내가 시간이 되는 여러 강의를 듣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한 과목 중 하나가 융복합 IoT 콘텐츠 제작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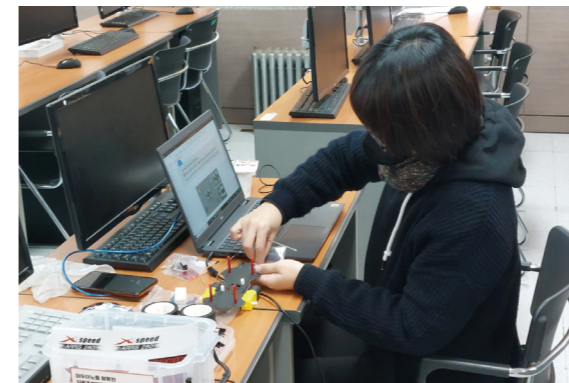
처음에는 이 과목을 통해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서 새로운 부업이나 창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교육을 받게 됐다.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나의 코딩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얇은 지식만 가지고 아이디어를 구현한다는 일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처 나의 능력을 파악하지 않고 쉽게만 생각한 것을 반성하며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혹시 중급반 과정이 개설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다.

그래도 IoT(사물인터넷)를 통해 인터넷으로 데이터와 사물을 연결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사람의 오감(센서)을 넘어 인터넷 제어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교육이었다. 사물을 아두이노와 연결하고 그것을 코딩해서 제품의 두뇌를 만드는 교육이었지만, 간단한 코딩 정도만 가능한 현재 실력으로는 머릿속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쉽지 않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준 교육이었다.

하루 아침에 실력이 쌓이지 않고 오랜 시간을 통해 코딩 공부が必要な 부분이라 지금은 간단한 코딩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감사하고, 이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언인지 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고마운 교육이었다. 초보자인 내가 수업을 끝까지 완주한 것에 대해 뿌듯하고 훌륭한 강사님을 만나 좋은 강의를 들으며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다.

정경희 교수님이 너무 친절하고 편안하게 가르쳐 주신 점도 좋았다. 30년 만에 다시 해본 낯뻐도 기억에 남고 특강도 기억에 남는다. 교육생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모습도 인상 깊게 남았다. 자율자동차가 제대로 구동됐을 때 서로 기뻐해주던 모습도 스쳐지나간다. 특히 굳이 나가서 점심을 사먹지 않아도 될 만큼 제공해주신 다과와 간식은 최고였다. 교육생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 직원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원래는 교육 이수 후 저녁에 할 수 있는 창업이나 부업을 고민했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시간이 필요하기에 현재 들고 있는 ‘제품 입체화 모델링 제작과정’을 마무리한 후 새로운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디지털 콘텐츠

“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

제품 입체화 모델링 제작-김승남

춘천 제품 입체화 모델링 제작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욕구였다. 현재의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왔지만, 막상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기에 딱 막힌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HiVE사업단 교육에 지원하면서 내가 가진 능력을 더 개발하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접하게 된 Tinkercad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3D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간단한 로그인 과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메뉴는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했지만, 새로이 접하는 환경이기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과 실습을 필요로 했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강사 선생님과 조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윤미희 선생님은 수업 시간 도중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두 같이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다. 정경민 선생님을 비롯한 조교 선생님들은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옆에서 꾸준한 설명과 실습의 예시를 보여주면서 수업 내용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주셨다. 또한 한림성심대학교에서는 실습 환경에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아주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주셔서 실습을 하는 데 있어 시원시원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

수업 전반부에서는 Tinkercad를 사용한 실습을 통해 주사위, 반지 등의 간단한 3D 모델부터 컵, 캐릭터를 이용한 저금통 등의 복잡한 구성요소를 가지는 3D 모델을 만들어보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었던 것이 더욱 실습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요소였다. 완성된 결과물은 뿌듯함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모델링 제작과정에서는 Tinkercad보다 더 정밀한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는 Fusion 360을 사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보다 강력한 모델링 도구이다 보니 프로그램의 사용법이 많이 어색했지만, 교재와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다. 복잡한 3D 모델을 차근차근 만들어보고 완성해보는 것은 너무도 흥분되고 보람된 경험이었다.

이번 모델링 제작과정을 통해 컴퓨터 그래픽과 3D 모델에 대한 나의 지식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머릿속의 공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냥 종이에 그리는 그림과 달리 3D 공간에 구현되는 예제의 모습을 3차원의 공간에서 회전/이동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은 실로 획기적인 경험이었다.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내 모델을 확인했을 때는 내가 이제 필요한 것을 만들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만족감과 함께 속달된다면 실무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심어주었다.

수료식을 끝으로 [춘천 제품 입체화 모델링 제작과정]을 마치게 되었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도 꾸준히 연습하여 실력을 가다듬으면 미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춘천 시민들을 위해 많은 주제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콘텐츠

“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과의 만남 ”

제품 입체화 모델링 제작-조현국

직장의 사무실로 날아온 안내책자를 통해 HIVE사업단 교육프로그램을 처음 접했다. 한 번 훑어보기는 했으나 내용도 생소하고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되어 진지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전액 국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의 도움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강사님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는데, 교육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자비부담이 정말로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수업을 따라갈 능력이 되는지, 온전히 강의를 다 수강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중년의 나이에 뭐라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전해 보기로 했다. 개인적으로는 영상제작, 홈페이지와 유튜브 운영 등을 하면서 여러 콘텐츠 편집프로그램을 다뤄보기도 했고 관심도 많았다. 3D 그래픽은 좀처럼 접근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배워서 영상콘텐츠를 만들 때 사용하고, 직장에서 신규 아이디어 장비나 시설을 제안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나 시제품으로 제안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초반에는 Tinkercad를 배웠고 후반에는 Fusion 360을 배웠다. 강의시간마다 다양한 여러 객체의 모델링을 하면서 낯설음에 대한 적응, 그리고 도전과 성공, 이어서 실패와 재도전이 반복되었다. Fusion 360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버거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겨우 수업을 따라가도 다음 수업이 1주일 지나서 있다 보니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집에 있는 노트북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양이라 배운 것을 집에서 복습할 수 없어 생긴 문제라고 판단했고, 결국 학습을 위해 큰맘 먹고 사양이 좋은 최신 데스크탑 PC를 새로 구입하게 되었다.

이후로는 배운 것을 복습할 수 있었고, 무료 배부 받은 책자를 통해 예습도 하면서 나름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다. **교육이 없는 날에도 연습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카톡 대화방을 통해 강사님께 문의하며 이어갈 수 있었다. 처음 우려대로 강의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집에서 복습과 예습을 하고 인터넷과 유튜브에 있는 관련 설명도 참조해가다보니 나름대로는 강의를 잘 따라간 것 같다.**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보게 된 국내외 Fusion 360 활용사례는 컴퓨터 입체모델링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었고 내게는 크나큰 흥미로 다가왔다. 개인적으로 당장은 창업이나 재취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을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배운 입체모델링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추가적인 학습과 연습을 통해 기술적 숙련도를 높여갈 생각이다. 여러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과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 공부하면서 조금씩 직장이나 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 때 활용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도전해야 할 것은 자격증 취득이다. 그 후 숙련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Fusion 360을 재밌게 가르쳐서 함께 활용했으면 한다. 더 나아가 현재의 인쇄 책자들이 캡처화면이 작아 학습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화면을 크게 확대하면서 알아보기 쉽게 하는 학습용 전자책을 만들거나 초보자들이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디지털 콘텐츠

“ 개발자로 살아온 삶을 지나 교육자로 인생2막을 열다 ”

코딩 지도사-권오성

2021년 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인생 2막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대학 때 전공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개발자 역할만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발자 역시 발전에 민감한 직업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개발에 소홀하다면, 금방 도태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코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특히 나 같은 개발자에게는 날개를 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막상 그 시작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HiVE 사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다양한 과정들 중에 어떠한 과정이 내게 어울리고, 또 앞으로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코딩지도사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코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교육현장에서도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26년간 직장생활의 대부분을 전산개발 업무를 수행한 나로서는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그 필요성도 몸으로 느끼고 있었기에 기대를 하며 교육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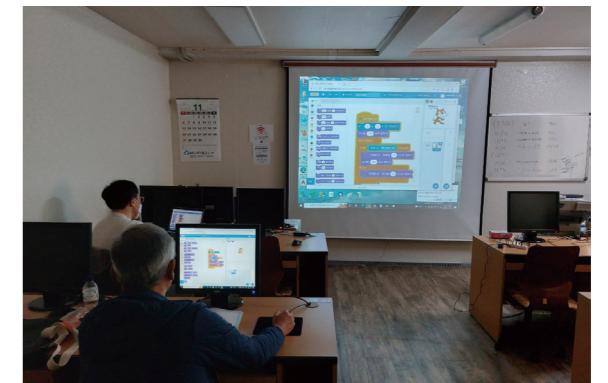
처음에는 나보다 연로하신 분이 참석하셔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 분께서 초기에 포기하시는 바람에 제일 연장자가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수업 내용은 모두 좋았던 기억이다. 단순하게 코딩에 대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이 교육을 통하여 사회진출을 어떠한 형태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 부분이 좋았다. 코딩을 직업으로만 알고 지내왔는데, 금번 교육을 통해 코딩이라는 것이 직업의 차원을 넘어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있음을 알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IT라는 것은 필수다. IT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코딩인 것이다. 코딩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전파할 수 있게 됨을 큰 보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교육 이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 코딩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코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필요성을 알리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방면으로 활동하고 싶다. 방과 후 강사, 비정규 특별 수업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취득한 코딩지도사 3급자격보다 상위 자격증(예. COS2급/1급, COSpro)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코딩교육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보조강사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강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HiVE사업을 통하여 로컬크리에이터 및 도시재생코디네이터 과정도 수료하였으며, 퍼실리테이터 2급자격증도 취득하였다. 홍천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설립 중인 협동조합(공정마을 희망여행인플랫폼)에서 원도심투어와 코딩을 묶어 상품을 개발해보려 한다. 예를 들면, 원도심투어 진행 중 동반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코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시간을 가져 부모님들에게도 호응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원도심투어 튜토리얼 등을 개발하는 과정을 조합원들과 함께 하면서 코딩 교육을 접목하려 한다. 이제 개발자가 아닌 교육자가 되어 개발하려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고자 한다.



디지털 콘텐츠

“내가 찍은 사진들을 화려한 영상으로, 소중한 추억들에 따뜻한 색을 입혀요”

영상촬영 및 편집 전문-이금숙

요즘 우리는 손안에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소풍을 가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업무적인 출장을 가려면 사진관에 가서 카메라를 대여해서 가야했던 시절을 살아왔고, 학창시절 카메라가 궁금하고 사진 찍는 것이 좋아서 HR시간에 사진부 활동을 했을 만큼 사진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지금 내 손안에 늘 카메라가 있다는 현실이 그저 신기하고 좋다.

평소에 영상편집에 관심은 많았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HiVE에서 영상촬영, 편집과정을 진행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배우다보니 너무 신기했고 동영상 제작만을 생각했는데 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니 휴대폰 앨범에 보관만 되고 있는 사진을 활용해서 멋지게 편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수업 중에 강사님께서 찍어 오신 영상을 가지고 직접 편집을 해보는 과정이 너무 좋았다. 홍천의 시장이나 통키마을, 남궁억 선생님 기념관, 수타사 등 홍천의 곳곳을 찍어 오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홍천시장도 멋있었지만 선생님이 찍으신 영상을 보니 촬영과 편집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홍천에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신비하게 색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찍은 동영상이 완벽하지 않아도 편집을 통해서 멋진 영상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는 영상 촬영 시의 팁을 배우게 된 점이 너무도 좋았다. 카메라의 기능과 사진을 목적에 맞게 잘 찍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번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할 생각은 아직 없지만,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취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든다. 내가 소장하고 싶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고, 혹시나 HiVE사업단에서 과정을 다시 개설해준다고 하면 꼭 다시 신청해서 역량을 키우고 싶다.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일은 그동안 찍어놓은 어머니의 영상을 잘 편집해서 소장하고 싶다. 건강하실 때의 영상은 없지만 사진으로 대체하고 비록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지금 현재가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실 때이니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잘 편집해보려고 한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이 종료가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편집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언제라도 물어보라며 연락처를 주시는 친절하신 주 PD 님이 계셔서 아쉬움도, 중도포기의 두려움도 없어졌다.

좋은 배움의 기회를 주신 HiVE사업단에 감사하고 친절하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애써주신 주경록 PD님, 이미성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업시간 때마다 준비되었던 맛있는 간식은 저녁을 먹고 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요긴한 양식이 되어주었다. 매번 메뉴를 선정하고 3층까지 가져다주시는 직원분의 수고로움에도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콘텐츠

“ 최고의 교육을 만나 미디어 음악 제작의 꿈을 펼치다 ”

사운드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이기동

오랫동안 음악이라는 장르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이었고,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이 만든 음악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개인 컴퓨터에서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미디어 음악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들도 취미로 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나도 평소 미디어 음악에 관심이 있어 음악을 만드는 기쁨을 즐겨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홍천에서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런 중에 아내가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운드 제작 과정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에 바로 수강신청을 했다. 음악의 불모지 홍천에서 그동안 목말랐던 미디어 음악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기다렸다.

첫 강의시간에 강사님의 경력과 프로필을 알게 됐다. 10년간 대학 교수로 강의를 해오시며 k-pop 및 방송 작·편곡 등의 왕성한 활동을 하셨고, 기타 레슨을 비롯해 미디어/비트메이킹, 화성학 등 다양한 음악 이론을 가르쳐주실 수 있는 분이였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기대가 더욱 커졌음은 물론이다.

이경봉 강사님은 미디어 음악의 불모지인 홍천에 선구자 같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의 목적은 대부분 동일했지만 각자 지닌 경험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었기에 아마 강사님이 가르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것 같다. 그럼에도 강사님은 우리를 위해 정말 충실한 교육을 해주셨다.

강의를 듣고 나서 나는 강사님에게 배운 에이블톤을 통해 미디어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나에게는 놀라운 변화이고 결과이다. HiVE사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최고의 강사님에게 강의를 들은 결과라 생각한다.

다만 강의를 들으면서 아쉬운 점이 세 가지 있었다. 첫째는 홍보와 광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홍천에 거주하는 대부분 남자 직장인들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것이다. 나도 아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광고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혜택과 교육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둘째는 강의가 좀 더 세분화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학기마다 똑같은 강의를 반복하기보다는 적어도 기초반, 심화반으로 나누어 강의에 차별을 두면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는 이런 과정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다. 홍천에는 11사단 군부대가 있으니,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에게도 이런 교육과정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지금은 군대마다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도 가능한 시대이니 충분히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홍천에는 배움에 대한 간절함은 있지만 여건과 환경이 부족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HiVE사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소정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많아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HiVE사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주신 한림성심대학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고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이경봉 강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지역특화 크리에이터 과정



개요

- 지역 산업체 및 지역 주민 성장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과정 맞춤형 고등직업교육 모델 제시를 위한 교육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구비를 포함 실습 환경 구축
-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취·창업 실무 교육,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 지원, 메타버스 제작 입문 교육
- 만족도 분석 및 교육과정 보안을 통한 취·창업지원 및 교육과정 보완 및 고등직업교육 프로그램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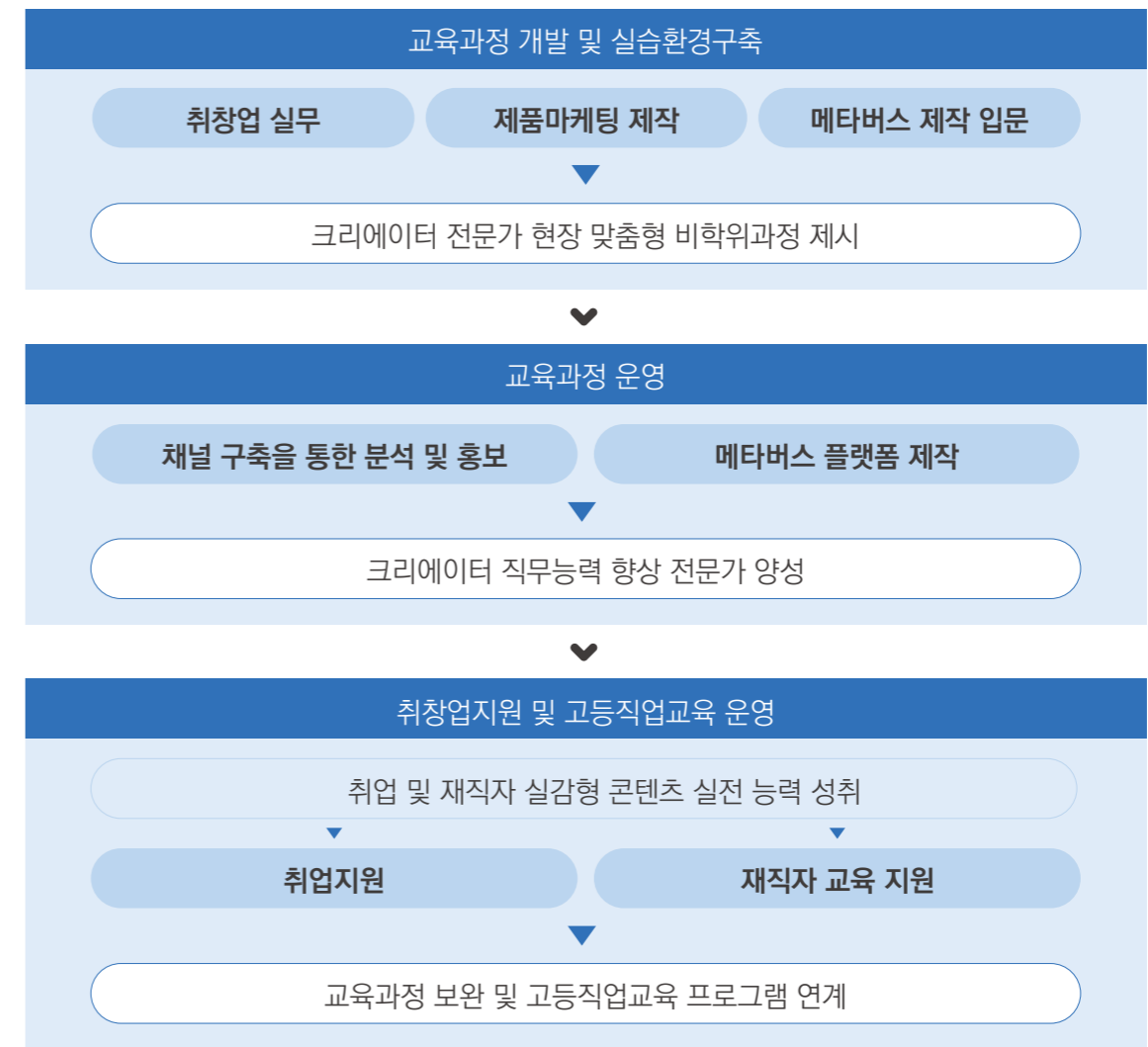
운영프로그램

- 취창업역량강화
- 제품마케팅 제작
- 메타버스제작입문

추진방법

- 유관기관 공동 홍보 및 모집
- 브랜드 전략 및 동기부여(Action Plan)
- 지속적인 모니터링 산업체 선정
- 콘텐츠에 대한 마케팅
- 크리에이터 전문가 과정 실제 참여 수강생 중심으로 재직 산업체 만족도 분석 실시
- 특화 교과과정과의 연계성 분석 후 연계 교육 실시

단계별 계획





지역특화 크리에이터

“ 장애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앱을 개발하고 싶어요! ”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백지영

현재 근로활동과 구직을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다니고 있다. 취업과 관련하여 고민이 많던 차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선생님께서 HiVE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셔서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ITQ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너무 오래 전에 취득한 자격증이었고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아 관련 기능들을 다 잊어버리고 생활하고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문서작성 등 사무업무 관련하여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다시 배우고 새롭게 익힌다는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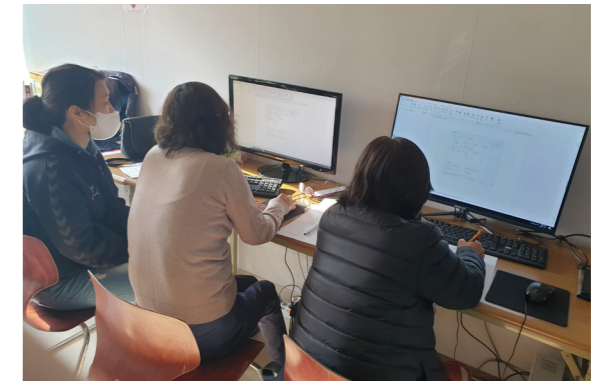
예전 자격증을 취득한 젊은 나이에 비해 지금은 나이가 들어 짧은 교육기간 동안 수업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섰지만, 걱정이 무색할 만큼 교수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무사히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기능들을 토대로 사무행정직종과 차년도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에 도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자가격리를 마치고 교육에 참가했을 때 잠시 주춤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차근차근 알려주셨고 모르는 부분은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다. 덕분에 교육에 몰입할 수 있었고 다른 수강생들과 진도도 맞출 수 있었다. 잊고 있었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의 기능 및 활용법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었고, 새로운 기능들을 알게

되어 기뻐다. 특히 엑셀을 배우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데이터를 입력하여 값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웠고,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산출하는 것이 복잡하긴 해도 여러 번 함으로써 배움의 뿌듯함을 느꼈다.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 배워 기존에 알고 있던 기능들에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대입하여 쓸 수 있는 활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배웠던 교육내용들을 가지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자 한다.

사물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보는 관점이 생긴 것도 큰 수확이다. **아이디어와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셨던 것이 생각난다. 처음 강의에서 독거인(노약자)을 위해 만든 앱을 얘기해주셨는데, 정말이지 꼭 필요한 거라 생각이 들었다. 이걸 토대로 장애인에 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앱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강의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떤 기능을 추가하면 좀 더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도움을 주셨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것들을 앞으로 일하게 될 직장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항상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 컴퓨터의 기능을 배우도록 노력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싶다.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배움에 도전할 것이다. 현재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지역특화 크리에이터

“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다 ”

제품마케팅 제작-이다형

요즘은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잘 파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등 각종 온라인에서 쇼츠 같은 짧은 영상을 통해 수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꼭 배우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연치않게 접한 하이브사업단의 제품 마케팅 제작과정을 통해 영상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마음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내가 계속 안고 갈 꿈 때문이다. 영상 제작을 통해 누군가의 홍보를 도와주고, 큰 매출을 얻게 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짜릿한 일이었다. 이미 우리에게서 여러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 공개할 수 있는 영상 제작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실력을 키우고 싶었고, 나아가 내 꿈의 밑거름이 되어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교육을 신청하며 기본적인 편집방법이나 촬영방법, 그리고 대중이 좋아할만한 요소나 콘텐츠에 대해서도 잘 배워보고자 다짐하였다.

제일 기억에 남는 내용은 단연 사진촬영에 관한 내용이었다. 사실 이전에는 사진 촬영이라는 영역에 대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즐기는 사람도 별로 없는 취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며 직접 여러 가지 카메라를 접해보니 흔히 쓰던 스마트폰의 카메라와는 정말 많이 차이를 느끼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사진촬영을 위한 기법이나 내용들을 정말 새로우면서도 신선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쉬우면서도 잘 찍을 수 있는지, 음식이나 인물의 촬영방법, 영상 촬영시의 기법 등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남들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이

차이를 인지하고, 그렇게 내용을 선별해서 어떻게 구성을 짜야 하는지 등 배우는 점이 조금 어려우면서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었다.

전문 사진작가인 강사님에게 제일 많이 받은 교육은 사진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고 혼자 자화자찬하는 일도 많았지만, 강사님께 수업을 들으니, 내가 알던 것보다 몇 백배, 몇 천배 심오한 것이 사진의 세계였다. 비록 아직은 맛배기에 불과하지만, 입문을 잘 했으니, 이제는 내 노력으로 실력을 키워갈 발판을 마련한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영상편집 과정도 배웠으나 그렇게 많은 내용을 배우지 못해 아쉬웠다. 그래도 사진 촬영 시엔 직접 카메라를 들면서 나중에라도 배운 과정을 다시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 폴리텍 3대학교의 미디어콘텐츠과에 진학을 하게 된다.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위해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놓고자 프로그램을 이수한 목적도 있었다. 먼저 학과 공부에 매진해가면서 성공적으로 이수를 한 이후엔 영상에 대한 꿈에 한 발짝 더 들여놓을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증 취득이나 간단한 외주 일부터 시작해서 스펙을 쌓고, 취업 시의 경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HiVE [제품마케팅 제작과정]의 수료 이후의 학업을 열심히 하여 취업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매 시간 진심을 다한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3

IT융합 전문가 인큐베이팅

· 미래 JOB다 프로젝트

· 스마트 워킹



3. IT융합 전문가 인큐베이팅

미래 JOB다 프로젝트 과정



개요

- 지역 성인학습자 대상 4차 산업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전문인력양성 체제 구축
- 4차 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기자재 및 메이커팩토리 고도화로 현장실무에 활용 가능한 4차 산업 전문 인력 양성
- 4차 산업 시대의 도래와 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적인 사고를 갖춘 인력 배출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사회 기여
- 지역사회 재투입을 통해 지역 산업 활성화 기여
- 중장년층 재취업 기회 부여를 통해 지역 복지 기여
- 지역의 후학습 체계 활성화 및 산학협력 연계 강화



단계별 계획

1차년도(2022년) 기반구축 역량확보

- 4차 산업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육과정 및 교수자 공동운영 체제 구축
- 유관 협력기관·산업체 네트워크 구축
- 실습 인프라 등 교육여건 마련
- 자격취득·일자리연계·후학습 연계 기반 마련

2차년도(2023년) 질적 성장 가속

- 4차 산업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 개편(환류)·운영
- 교육과정 및 교수자 공동운영 체제 확립
- 유관 협력기관·산업체 네트워크 강화
- 실습 인프라 등 교육여건 개선·환류
- 자격취득·일자리 연계·후학습 연계체제 확립

3차년도(2024년) 환류 및 고도화

- 4차 산업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 개편(환류)·운영
- 교육과정 및 교수자 공동운영 체제 고도화
- 유관 협력기관·산업체 네트워크 강화
- 실습 인프라 등 교육여건 개선·환류
- 자격취득·일자리 연계·후학습 연계체제 강화



미래 JOB다 프로젝트

“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제품 개발을 기대해주세요 ”

3D 프린터 자격-함덕호

융복합 IoT 교육을 받으며 두뇌를 공부했으니 이제 제품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3D 프린터 자격과정]을 수강하게 되었다. 지난 교육을 통해 코딩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꼈고, 코딩 공부를 바탕으로 IoT 수업을 접목해 두뇌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두뇌를 만들었다면 그 두뇌를 담을 그릇인 육체까지 만들어야 하나의 아이디어가 완성되어 세상에 나올 수 있겠다는 당연한 사실도 깨달았다. 그러니 육체가 되어줄 제품 출력에 대해 배워야겠다는 결심으로 [3D 프린터 자격과정]을 수강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연결이었다. 궁극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로 시제품을 만들어 내보자는 목표를 세운 것이고, 창업이나 부업으로까지 이어지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교육과정은 짧은 수업시간임에도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한 점이 인상 깊었다. 첫 번째 파트는 3D 프린팅 마스터 2급 자격증 과정이었다. 제품 소재, 3D 프린터 종류와 모델링 프로그램 활용법 등 이론적 공부를 통해 3D 프린터의 전반적인 과정을 습득할 수 있었고, 시험까지 합격하게 되어 아주 기뻐했다. 두 번째는 Fusion 360을 통한 제품모델링 프로그램 활용방법이었는데, 돌출, 회전, 스윙, 로프트와 같은 기본 기능으로 제품모델링을 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비록 기초 수업이었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세 번째는 큐비콘 슬라이싱 프로그램 활용과 실제 제품 출력하기였다. 출력하기 전에 슬라이싱 프로그램의 옵션활용과 G-CODE 출력파일 만들기, 큐비콘 3D 프린터 설정 및 실제 출력방법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들으며 누군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깨와 소금을 섞으면 깨소금이 되고 깨와 설탕이 섞이면 깨달음이 된다는 아재개그 같은 말이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뉴턴과 사과와의 인연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낳았고, 잡스와 애플과의 만남은 세상을 바꿨다. 이처럼 좋은 아이디어와 융복합 IoT 콘텐츠 교육, 그리고 3D 프린터가 합쳐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제품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디어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다.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 보여주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스스로 시작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일인데, 모든 것을 배워서 현실로 제품을 구현하기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라 도전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운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혼자 도전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강사님들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교육은 큰 성과였다. 앞서서 걸어가는 경험자가 있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오류과정을 단축시켜줄 기회라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원래는 교육 이수 후 저녁에 할 수 있는 창업이나 부업을 고민했지만 현재 실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추가로 듣고 있는 [제품 입체화 모델링 제작과정] 수업을 마무리한 후 다시 고민할 예정이다.





미래 JOB다 프로젝트

“ 저도 이제 온라인 스토어 사장님입니다 ”

디지털 커머스-김정수

홍천에서 블랙커런트와 산마늘(명이나물)을 재배하고 있는 초보농부로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바른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정성을 다해 키웠지만 판로가 없어 힘들어할 때, 홍천에서 진행되는 좋은 교육이 있다고 하여 검색을 하다가 [디지털 커머스 교육과정]을 지원하게 되었다.

사실 구체적인 생각도 없었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수업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첫 수업시간에 강사님의 구체적인 질문에 당황을 했고, 내가 얼마나 생각이 없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큰 변화를 요구하는 강사님의 요구에 포기할까 고민도 했지만, 이걸 넘어서야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아 강사님이 내준 숙제를 열심히 했다. 숙제를 하다 보니 정리가 되었고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블랙커런트라는 단어 하나에서 시작하는 마인드맵 강의였다. 예전에도 마인드맵을 본적은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소재를 이끌어내는 강의를 들으며 정말 감탄하였다. **또한 시작이 반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각났다.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다보면 길이 보이고, 구체화되어 없던 제품도 만들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져 수익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브랜딩과 판매를 위한 온라인 제품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배웠다. 가장 먼저 마인드맵을 통해 브랜드를 만들었고, 스토어 검색을 통해 제품군을 만들었고, 온라인 고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품 등록을 하였다. 덕분에 아무 것도 없던 내게 많은 것들이 생겼다. 스마트스토어에 제품을 2개나 등록하였고, 이제는 혼자서도 제품을 등록할 수 있고 관리 및 사후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에 완전 만족한다. 뭔가를 준비하며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한다.

처음 온라인에 제품을 등록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기업이나 전문가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매주 수업을 들으며 강사님의 추진력과 구체화로 뜬구름 같던 상상들이 구체적인 용기가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게 되었다. 그 결과 어설프지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제품을 등록했고, 그에 그치지 않고 제품이 잘 판매도 될 수 있도록 제품 수정과 홍보방법을 교육해 주셔서 판매지역과 판매대상에 한계가 없는 온라인상에서 파워셀러가 되어보자는 목표가 생겼다.

앞으로는 재배하고 있는 블랙커런트와 산마늘을 모두 온라인에 등록하여 판로를 개척하려고 한다. 현재는 직접 재배한 블랙커런트와 홍천에서 재배한 사과와 블루베리를 혼합한 잼을 개발하여 지인들을 통해 판매를 하였고, 블랙커런트 생과 따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이 제품들을 온라인에 등록했으니 홍보에 좀 더 힘써 판매를 확대하는 것으로 내년을 준비하려고 한다. 또한 산마늘도 잎따기 체험과 산마늘줄기 장아찌를 개발하여 온라인에 등록할 계획이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방법을 알았고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홍천군과 한림성심대학교에 감사로 드리며, 먼 거리에서 매주 강의를 해주러 오신 김덕기 강사님과 모르는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안은숙 보조강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3. IT융합 전문가 인큐베이팅

스마트 워킹 과정



개요

- 지역 성인학습자 대상 e-비즈니스 역량강화에 따른 전문인력양성 체제 구축
- 언택트 시대의 확산에 따른 온라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강원지역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들에게 온라인 스토어에 대한 운영 방안 교육 및 매출 확대 기회 제공
- 창의적 발상, 디자인씹킹 및 혁신적인 기획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 제고

기대효과

- e-비즈니스 직무역량 강화교육 운영에 따른 지역특화 교육프로그램 발굴
- 사회소외계층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
- 지역의 후학습 체계 활성화 및 산학협력 연계 강화



단계별 계획

1차년도(2022년) 기반구축 역량확보

- e-비즈니스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육과정 및 교수자 공동운영 체제 구축
- 유관 협력기관·산업체 네트워크 구축
- 실습 인프라 등 교육여건 마련
- 자격취득·취창업·후학습 연계 기반 마련

2차년도(2023년) 질적 성장 가속

- e-비즈니스 관련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편·운영
- 교육과정 및 교수자 공동운영 체제 확립
- 유관기관·산업체 네트워크 강화
- 실습 인프라 등 교육여건 개선·환류
- 자격취득·취창업·후학습 연계체제 확립

3차년도(2024년) 환류 및 고도화

- e-비즈니스 관련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 환류·운영
- 교육과정 및 교수자 공동운영 체제 고도화
- 유관기관·산업체 네트워크 고도화
- 실습 인프라 등 교육여건 개선·환류
- 자격취득·취창업·후학습 연계체제 강화

스마트 워킹

“ 할머니 유튜브 채널을 기다려주세요 ”

항공영상 촬영 제작-박경숙

얼마 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이 드론 1대를 보내주었다. 늘그막에는 다양한 취미를 가져야한다는 주장의 일환인 것 같았다. 그러나 내겐 너무 생소한 그냥 기계였다. 더구나 이것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는 말에 실감이 나지 않았다. 꽤 비싼 값을 지불한 것 같은데 써먹을 수가 없으니 환불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잔소리만 들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드론의 기초를 가르쳐주는 곳에 등록을 했다. 그리고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물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찾아본 수많은 유튜버들의 멋진 작품을 보면서 나도 꿈을 갖게 되었다. 남들과는 다른 시각을 찾아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미술과 사진을 전공한 나의 시각이 조금은 남들과 다를 것이라는 은근한 자신감도 한 몫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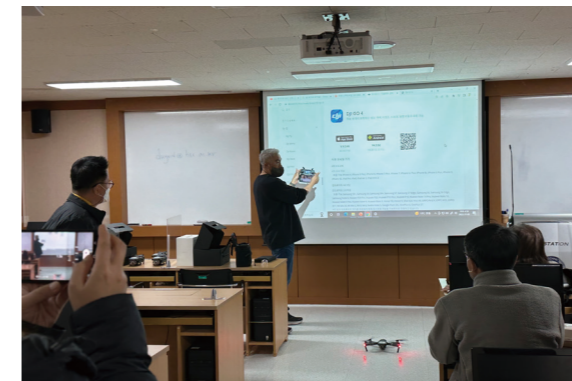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 최고령에다 여성인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나 표현, 기호 등이 너무 많았다. 화면은 왜 그렇게 빠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더구나 개인 지도가 아닌 단체 학습에서 남들에게 민폐가 될까도 걱정이었다. 다행히 나는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내 모든 사정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은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묻고 또 묻고 되묻는 나에게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가르쳐 주셨다. 입장을 바꿔 봐도 절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내가 만든 영상 한 편을 유튜브에 올렸다. 어설픈기 짝이 없고 특별히 재미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언제나 다시 볼 수 있는 나만의 작품(?)이 딱하니 공용 플랫폼에 올라있다는 엄연한 사실이 너무 신기했다. 같이 공부하는 몇 명의 학우들 덕분에 이제

열 몇 번의 조회수도 기록되어 있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 가면 언젠가는 괜찮은 작품으로 다른 이들과 어깨를 견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

어설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나는 지금 스마트폰과 드론으로 찍은 영상들을 나름대로 편집을 거쳐 업로드 시킬 수 있다. 얼마 전에는 금년에 대학 새내기가 된 친구의 손녀를 만났다.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다. 짧은 영화 한 편을 만들어야 하는데, 각본을 짜서 5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단다. 속을 태우며 걱정하고 있는 아이에게 아이디어를 주었다. 옛날 보물지도를 우연히 구해서 그걸 가지고 친구들이랑 카누를 타고 보물을 찾으러 가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카누를 타고 보물섬으로 가는 장면들은 할머니 친구인 내가 드론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녀석은 환호작약했다. 득달같이 친구들을 동원하고 콘티를 짜서 모였다. 나는 그날 촬영기사를 맡았고, 아이들은 모두가 A+를 받았다고 한다.

요즘은 유튜브에 올라 있는 많은 작품들을 분석해보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들과 구별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다. 실력이 충분히 닦여지면 좋은 작품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더 공부하고, 연습하고, 실습을 해야 할 것이다. 굳은 의지가 있기만 하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거다.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 유튜브 창업자가 돼보겠다. 첫 작품이 완성되면 제일 먼저 저를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링크를 보내드리고 싶다.



스마트 워킹

“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기대해 주세요! ”

스마트한 사업제안서 작성-안은숙

현재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돌봄과 작은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홍천에서 HiVE사업단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안내 문구를 보면서 여러 가지 교육 중에 [스마트한 사업제안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복지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제안서는 꼭 작성해야 하는 일이며,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도 꼭 배워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육에 참여해보니 수강생들마다 다른 목표에 맞춰 강사님께서 맞춤 사업제안서를 안내해주시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원 사이트와 지원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시설이 필요한 부분인지, 브랜드를 살려야 하는 부분인지, 제품개발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지 등 현재 상황을 잘 모니터링 해주시면서 개인에게 맞는 사업제안서를 추천해주셨다. 비슷하게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다른 지역의 사업제안서 내용이나 사업계획서들도 찾아봐 주셔서 처음 사업제안서를 접한 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봐주시고, 작은 사업부터 규모가 큰 사업까지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주셨다.

또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개선되어갈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적어두고 필요한 부분만 추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리방법까지 교육해주셔서 앞으로도 조금씩 탄탄하게 사업제안서를 완성해 갈 수 있을 것 같다.

매번 강의를 들으면서 1장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조금씩 양이 늘어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능력도 커지고, 다른 사업계획서를 찾아보면서 다른 사업을 벤치마킹하게 되었다. 아직 많은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지는 않았지만, 글, 표, 그림으로 제안하려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면 어떤 제안서를 작성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강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처럼 사업제안서 심사위원의 눈으로 다른 수강생들의 사업제안서를 듣고, 평가하고, 나의 사업제안서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겪는다면 더 큰 성장을 하게 될 것 같다.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사업제안서를 더 탄탄하게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면 벌써 보람됨을 느낀다. 교육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사업구상의 폭도 넓어진 것 같다.

앞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활성화시키고, 마을에 도움이 되는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관련 회사 및 공공기관에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처음부터 큰 사업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보다 회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은 지원사업부터 준비해보려고 한다. 채택되지 않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 사업제안서 강의를 들으면서 쉽게 이뤄지는 것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만큼의 기간과 노력이 있다면 더 큰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것 같다.





4

레저 전문가 인큐베이팅

· Dream Life 레포트 과정



4. 레저전문가 인큐베이팅

Dream Life 레포트 과정



개요

- 지역 성인학습자 대상 지역 특화를 통한 스포츠 전문인력양성 체제 구축
- 홍천군 체육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생활체육·전문체육 고유 기능의 균형 발전과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홍천의 스포츠 메카 특화를 활용한 스포츠 전문가 과정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

기대효과

- 홍천군 체육중심도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 복지 증진 기여
- 홍천군 지역 특화산업 기반 강화 및 다각적인 사업화 연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의 후학습 체계 활성화 및 산학협력 연계 강화



단계별 계획

1차년도(2022년) 기반구축 역량확보

- 스포츠전문가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
- 홍천군체육회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실습 인프라 등 교육여건 마련
- 자격취득·취창업·후학습 연계 기반 마련

2차년도(2023년) 질적 성장 가속

- 스포츠전문가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 개편(환류)·운영
- 교육과정 운영 체제 확립
- 지역 협력기관·산업체 네트워크 강화
- 실습 인프라 등 교육여건 개선·환류
- 자격취득·취창업·후학습 연계체제 확립

3차년도(2024년) 환류 및 고도화

- 스포츠전문가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 개편(환류)·운영
- 교육과정 운영 체제 고도화
- 지역 협력기관·산업체 네트워크 강화
- 실습 인프라 등 교육여건 개선·환류
- 자격취득·취창업·후학습 연계체제 강화



Dream Life 레포트

“ 취미에서 자격증까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변한 나 ”

라이프가드 자격-서규림

[라이프가드 자격]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매우 단순했다. 그냥 수영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무료교육의 기회가 있는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30대 중반의 성인이 다 되어 다이어트를 하자는 목표로 수영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점차 수영에 재미를 느끼면서 수영과 관련된 자격증에도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홍천수영연맹을 통하여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에서 라이프가드 교육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앞 뒤 안 가리고 신청을 했다. 라이프가드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사전 테스트에 통과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첫 교육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전테스트 항목이 무엇인지, 항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폭풍 검색과 사전 연습을 했다. 교육이 모두 끝난 지금 생각해보면 라이프가드 자격 취득의 시작은 단순하였으나,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생각과 노력, 욕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자격증을 취득한지 2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아직도 강습 시작의 첫 날과 강습의 전 과정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약 한 시간~한 시간 반 정도의 사업 설명을 진행하고 바로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낙오자 없이 모두 강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고는 쉴 틈 없이 바로 실기 강습에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운동량 때문에 깜짝 놀랐다. 라이프가드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란 것을 알았지만, 설마 첫 날부터 그렇게 운동량이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강사님 말씀이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 수영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라이프가드 자격증은 물과 관련된 자격증 중 높은 난이도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나 스스로 느끼기에도 힘든 자격증이라는 점에 동감한다.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을 반납하고 하루 5~6시간의 수영 실습관련 수업을 듣기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평일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엔 라이프가드 실습교육으로 인한 근육통으로 매일매일 몸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았지만 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동료 분들이 계셨기에 힘내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라이프가드 자격뿐 아니라 손상예방지도사 3급 자격증도 함께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기본인명구조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좋아하는 수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급상황에 다른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한층 더 강인해지고 발전한 나 자신을 보니 정말 보람찬 시간들이었다.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과 홍천군에서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의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는 점점 욕심이 난다. 다음에는 심폐소생술-손상예방지도사 2급 교육 강사과정 관련 교육과 생활체육지도사 과정 등에 도전해 볼 것을 다짐하며, 언제쯤이 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여러 사람들에게 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강사가 되는 꿈을 가져본다. 라이프가드 자격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나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 기회를 통해 미소를 짓게 되었다.





Dream Life 레포트

“골프 플레이어가 전문 캐디가 된 사연”

캐디 양성-이덕순

평소 골프를 즐기는 플레이어로서 캐디라는 직업에 호기심이 많았는데, 집 근방에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에서 캐디 양성과정을 교육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다. 라운드를 하면 항상 캐디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캐디가 되면 어떨까?’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캐디 양성과정을 들어서 골프장 캐디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다. 캐디 양성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멋진 캐디가 되어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골프를 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골프와 골퍼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야 하는 캐디가 바라보는 골프는 너무 달랐다. 먼저 김대중 교수님께서 “캐디도 전문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인정받는 전문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하신 강의에 감명을 받았다. 골프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캐디학 개론과 캐디 직무교육을 배우면서 실제로 강사님들과 교육라운드를 진행했고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처음 교육라운드를 했을 때는 캐디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기도 했다. 고객을 위해서 코스도 숙지해야 하고, 거리에 관한 정보와 어드바이스를 전달해야 하고, 각 고객에게 맞는 클럽을 다 숙지해야 하고, 그린에 올라가서 고객의 볼을 보고 라인을 체크해서 라인을 놓아야 하는 일, 경기 진행을 위해서 앞팀도 신경 써야 하는 일 등등 정말 캐디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 이래서 왜 캐디가 잘 배워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지금 돌아해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의 연속이었지만, 모르는 과정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정말 행복했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원래 골프를 좋아했고 즐겨했지만 캐디로서 골프에 대한 자각을 새로 하게 된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캐디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제 캐디를 해보는 것이었으며, 골퍼들에게는 좋은 라운드를 위해 캐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었다. 캐디양성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골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캐디를 계속 즐겁게 할 계획을 잡고 있다. 한국 나이로 지천명의 나이에 캐디 양성과정을 통해서 캐디 직무를 배웠고, 현재 소노펠리체CC에서 캐디 일을 시작하고 있다. 나의 노후를 좋아하는 골퍼도 즐기면서 캐디를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즐겁다. 골퍼들에게 인정받는 전문성 있는 캐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나처럼 캐디 양성과정에 도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람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신 ‘골프앤’ 사장님과 늦깎이 학생이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신 강사님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5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 키즈케어 코칭
- 청장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 시니어 헬스케어
- 친환경 마을공동체 조성



5. 키즈케어 코칭

키즈케어 코칭 과정



개요

- 지역사회의 수요가 급증하는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영유아 돌봄 인력에 대한 재직자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
- 영유아 신규 돌봄 인력 확대에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운영프로그램

- “아(끼고) 나(누고) 바(라보고) 다(함께)” 키즈 케어 프로젝트
- 자격증 취득
- 재직자 교육

교육과정 / 활동

- 육아코칭전문가과정
- 부모상담교육전문가과정
- 미술놀이 이해와 누리컨설팅과정



단계별 계획

교육과정 개발 및 과정 준비

- 영유아 돌봄전문가 양성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가이드라인 정립
- 지자체·유관기관·주민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 교육과정 홍보 및 수강생 모집

교육과정 운영

- 춘천시와 흥천군 및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기관 홍보 강화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중간점검
- 프로그램별 지역 내 우수한 강사 인력풀 구축
- 지역의 현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고도화

만족도 평가 및 환류

- 지역 현안과 연계된 교육과정의 CQI 및 평가 수행
- 프로그램별 교육 수요자 만족도 평가 및 개선사항 의견 청취
- 차기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 우수사례에 대한 거버넌스 기관과의 공유

키즈케어 코칭

“앞으로도 아이들을 돌보며 행복을 전파합니다”

육아코칭 전문가 양성-신명자

만날 인연은 만난다는 말이 있다. 2021년 국민취업패키지를 등록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 광고를 보았다.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행복육아 과정에 관한 것이었는데 신청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다. 후일에 동행육아119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신청하지 않았던 걸 후회했다. 동행육아를 하면서 전문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며 양육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2년 10월에 다시 교육과정이 있다 하여 얼른 신청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으려니 힘들어서 그만 둘까 하는 약한 마음도 생겼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또 후회할 나 자신을 알기에 스스로 응원하면서 학교로 갔다.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맨 앞자리를 고수했고, 강의하시는 강사님께 누가 되지 않게 적극적인 경청자세로 임했다.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운다는 것에 행복했고, 어느 정도 시간에 적응되면서 교육받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즐거움과 다양한 강사님들의 노하우들을 무료로 얻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 **또 교육이 끝나고 얻어지는 두 개의 자격증 취득도 있어 뿌듯했다. 요즘 육아 트렌드를 접하는 시간이 되어주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빈약한 내 생각 주머니에 알찬 지식의 열매들을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행복한 의사소통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에니어그램을 교육받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전에 할 때와 다른 유형이 나왔다.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지고 전에 한 것과 비교해보니 스스로 포장한 내 모습을 보게 되었고, 덕분에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내 에니어그램 체크리스트 결과는 머리형 6번 성실한 충성가이다.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기질을 바탕으로

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 에너지를 습득하려는 성향을 추구한다고 한다. 나는 어릴 적에 화상으로 극심한 말더듬이 있었다. 말더듬으로 낮가림이 심해 사람과 대화하는 데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갖고 산적도 있다.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얼마 전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겪은 일이 있었다. 그때는 처음 겪는 일이라 원인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넘겼는데, 에니어그램을 배우면서 내 속에 내재된 두려움이 근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오히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두려움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알게 되어 좋았다. 예전에는 ‘나 하나만 바르게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은 생각으로 일을 할 때 얻어지는 만족감과 행복은 백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2023년 2월 현재, 동행육아119사회적협동조합에 육아전문가로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아는 분이 위탁가정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의향을 물었는데, 그때는 자신이 없어 거절했다. 교육을 받고 난 후에는 위탁가정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올해 한 번 더 육아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잘 활용하고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강화하면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고 싶다.



키즈케어 코칭

“행복한 육아코칭 플래너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부모상담교육 전문가-권명순

사회적 기업인 육아119 덕분에 HiVE사업단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 교직생활을 은퇴하고 추천으로 이사를 온 후 운명처럼 만난 육아119는 내 안에 축적되어있는 지혜와 경험을 맘껏 발휘하도록 해주었다. 육아코칭 플래너로서의 자격과 기회를 선물해 주었고, 나 또한 이 귀한 인연에 보답하려고 진심을 다해 역량을 쏟았다. 내 자신이 자녀를 키울 때 고민하고 중요시 여겼던 양육철학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만남 속에서 양육자들의 만족도도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저출산으로 인해 직면해있는 현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솔루션을 찾아보려는 동행육아 프로젝트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활동이었다. 첫 걸음마라고 생각하고 육아코칭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게 절실하다고 판단했기에 HiVE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동행육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자의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소위 MZ세대에 속하는 엄마들이다. 그래서 처음 플래너로 방문했을 때는 플래너를 대하는 태도, 예의, 대화법 등이 이해가 되지 않고 눈에 거슬리는 점이 많아서 속으로 삭히기가 힘들었다. 이번 교육이 그 어려움을 해소해주었다. 부모상담 교육을 강의한 강사의 대부분이 어린이집 원장이다보니, 요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 만난 양육자의 갖가지 사례들을 강의시간에 소개해주었고, 젊은 세대의 삶의 패턴, 사고방식, 가치관 등을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좀 더 너그러운 인생 선배가 되어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초보 양육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 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또한 부모상담 교육을 통해 부부간의 관계가 양육에 미치는 중요성도 새삼 깨달으며 내 자신의 지난 삶을 되새김질하는 반성의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평온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회가 급변하다보니 가치관, 삶의 방식, 인간관계 등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되고 아직 자아와 정체성이 견고해지지 않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시기의 성장환경과 배경은 훗날 평생을 좌우하는 디딤돌이고 동아줄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양육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노력해야 한다. 육아코칭, 부모 상담교육을 들으면서 후회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 다시 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태교부터 정성을 기울여 노력하는 엄마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교육을 받다보니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교육수강을 마치면서 이런 뉘우침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내년에 플래너 역할을 수행할 때는 양육자들과의 만남 때 회 때마다 진심을 다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

내년에도 육아 플래너 활동을 다시 하게 된다면 올해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양육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멘토가 되어 향후 2~3년간은 더 행복한 플래너로 살고 싶다. 그 이후엔 HiVE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이수하여 지금까지 경험 못해 본 다양한 분야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누군가의 마중물이 되고 싶은 내 삶의 슬로건에 화답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히 허락되는 날까지 사회에 보탬이 되는 OPAL(Old People Active Life) 중년의 삶을 활기 있고 가치 있게 꾸려가려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고 했으니~



키즈케어 코칭

“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방법 ”

부모상담교육 전문가-석도익

가끔씩 내 고장에 관한 소식을 알기 위하여 홍천군청 홈페이지를 보다가 군민을 위한 교육사업인 HiVE의 홍보를 보게 되었다. 부모교육전문가 과정이 눈길을 끌었지만, 내 나이를 생각하면서 조금은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반평생을 바른 청소년 육성을 하고자 일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무엇이랄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 특히 아이들의 제1차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평소 생각에 따라 용기를 내서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부모교육전문가 과정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특히 짧은 기간과 시간임에도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한 점이 좋았다. 고차원적인 학술을 대학교수가 강의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교육을 전해줄 수 있는 강사진들이 구성되었고, 이야기로 대화하듯이 전하는 방식으로 진한 감동까지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살아온 시대는 먹고 살기에도 급급했기에 아이들은 그저 굶기지만 않고 키웠으면 하는 게 큰 바람이었고, 초등학교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아이들은 그냥 크는 줄만 알았던 시대였다. 나라가 발전하고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았고, 우리 사회는 지나친 경쟁 속에서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오며 지금에 이르렀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유치원 과정도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어린이집 또는 유아원이 속속 교육기관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되었지 않나 싶다. 늦게나마 부모교육 과정을 수강하고 보니 이 분야는 벌써 많은 터전이 마련되어 정부에서도 관심을 쏟고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직업으로 도전하고 있음을 보며 정말 다행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번 교육을 함께한 동료 분들에게도 배움이 있었다. 현장에서 교육에 철학을 가지고 부딪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 청소년 교육을

위해 일했다고 자부하던 나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가 자라 청소년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도 아이들 생각은 뒤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은 태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다시 굳혔다. 좋은 것을 배우고 깨우쳤으며 이 또한 큰 보람으로 얻어진 것이다.

나를 되잡아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을 얻어서 기쁘다. 코로나로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오래도록 해오던 강의도 사라지고 생활반경도 위축되었다. 무엇보다도 나이가 많아서 불러주는 곳도 이제는 별로 없겠지만 자라나는 후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직은 무엇이랄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심정이다.

소설을 쓰거나 칼럼을 기고하고 강의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해주어야 할 부분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선생님은 부모다. 그러므로 내가 늘 생각해오던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모교육만 바로 된다면 교육의 기초는 이미 든든해지는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최고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데 그들에게 무슨 부모교육이냐 하겠지만, 그들에게 학술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 울곧게 살아온 방법들을 전해주는 것이 긴요 긴급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에 앞길이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를 이 시대,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방법의 하나인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싶다. 이제부터는 누구네 아이, 누구네 애들이 아닌, 우리 아이로 우리 애들로 키우고 가르치는 데 함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청·장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청·장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과정



개요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현장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발굴 및 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 교육과정 진행
- 대학의 강원지역직업교육거점센터를 활용한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

운영프로그램

- “3GO(배우고·익히고·취업하고)” 영피플 케어 프로젝트
- 취업 생태계 구축
- 취업지원 교육

교육과정 / 활동

- 취·창업 협의체 구성
-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 지원 과정
-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 지식 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 도시재생코디네이터 교육과정

단계별 계획

교육과정 개발 및 과정 준비

-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 춘천·홍천 청년 취업공동협의회 구축 용역 발주
- 취업공동협의회 거버넌스 기관 MOU 협약
- 지자체·유관기관과의 교육과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교육과정 홍보 및 수강생 모집

교육과정 및 협의회 운영

- 춘천시와 홍천군 및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기관 홍보 강화
- 취업공동협의회 운영에 대한 중간과정 평가
- 프로그램별 중간점검 및 우수한 강사 인력풀 구축
- 지역의 현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고도화

만족도 평가 및 환류

- 지역 현안과 연계된 교육과정의 CQI 및 평가 수행
- 프로그램별 만족도 평가 및 개선사항 의견 청취
- 차기 교육과정 및 협의회 운영계획 수립에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 우수사례에 대한 거버넌스 기관과의 공유



7. 시니어 헬스케어

시니어 헬스케어 과정



개요

- 취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부족한 노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 진행
-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협력활동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운영프로그램

- 실버 케어 프로젝트
- 실버 케어 자격증 취득
- 실버 취업지원 교육
- 실버 건강 증진 사업

교육과정 / 활동

- 인지건강 & 실버관계코칭과정
- 실버인지건강지도자과정
- 시니어여가프로그램지도자과정
- 시니어 바리스타과정
- 시니어건강카페 구축

단계별 계획

교육과정 개발 및 과정 준비

- 실버인지놀이 및 실버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가이드라인 정립
- 지자체·유관기관·주민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 실버건강카페 설립에 필요한 운영안 용역 발주

교육과정 및 협의회 운영

- 춘천시와 흥천군 및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기관 홍보 강화
- 교육과정 및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중간점검
- 프로그램별 지역 내 우수한 강사 인력풀 구축
- 지역의 현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의 고도화

만족도 평가 및 환류

- 지역 현안과 연계된 교육과정의 CQI 및 평가 수행
- 실버건강카페 이용고객들의 만족도 평가
- 프로그램별 교육 수요자 만족도 평가 및 개선사항 의견 청취
- 차기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 우수사례에 대한 거버넌스 기관과의 공유



시니어 헬스케어

“**어르신들의 동반자가 되고픈 꿈이 생겼어요**”

인지건강 & 실버관계 코칭-원명화

2021년 12월 31일에 39년 1개월을 다녔던 지역농협을 퇴직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던 중 [인지건강 & 실버관계 코칭 과정]을 만나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을 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살다보니 그 기회를 놓쳐 버리고 농협의 금융 업무를 보고 농업인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며 젊은 시절이 지나갔다. 그래도 오랜 근무기간 중 여성복지사업을 지도하는 업무를 맡았던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게 떠올랐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성 또는 노인들을 교육시키고, 말벗, 안부전화, 도시락 제공 등을 위해 방문할 때면 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 얼마나 나를 붙잡고 반겨주셨던지. 나는 은연중에 이 나라, 이 사회의 어른 한 분 두 분이 부모님 같다고 느꼈고,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며 80~90대 노령이 되신 어르신들을 공경해 드리고 싶었다. 그를 위해 우선 나의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찾던 중에 이 프로그램을 만나서 너무 의미가 깊고, 배우려고 참여하는 시간마다 매우 기뻐다.

인지 미술이나 음악 같은 활동을 놀이로 풀어가면서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동작을 익히고 따라했다. 요 터치 교육 과정에서는 어르신들의 신체와 정신을 움직임으로써 뇌가 노화되지 않게 도움을 주어 건강을 유지하시겠다고 확신했다. 노년의 세대에 맞는 트로트 가사와 음정에서도 나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긍지를 갖게 해드린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관계코칭, 일명 성교육이라 일컫는 교육시간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성=생이라는 프로그램이야말로 동방예의지국이라 자부심으로 단단한 우리 민족에게 이제는 은밀함이 아닌 당당함으로,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하고픈 이성간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함을 배웠다. 동물이나 식물도 암·수 함께 노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 짝과 함께 해야 함을 이번 과정을 통하여 절실하게 체험하였다.

세대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더 오래 사신 어르신의 말씀은 우리 생애에 커다란 교훈이 되고 가르침을 준다. 이렇게 훌륭하시고 소중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 드릴 수 있음이 정말 값지고 뜻 깊은 일임을 실감한다. 나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 분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이 된다면 얼마나 멋진 삶의 후반일까. 나와 이웃이 늘 생기 넘치는 활력의 나날이 계속 될 것이다.

어르신 앞에서 인지놀이나 보드게임을 하는 학습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고 보살펴 드리고 싶다.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서도 부여받은 자격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고령사회를 넘어 연로하신 어르신이 점점 많아지는 장래에 우리는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고, 유익하고 쾌활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여 그 분들 앞에 서야겠다고 다짐한다.

우선 취업을 하여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용기가 있고 담대하여 질 때 어른 공경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움의 터를 창업하는 꿈도 가져본다. 지금은 작고 나약하지만, 처음부터 잘 하자고 욕심 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며 나아가는 교육 수료생이 되겠다. 그동안 훌륭한 강의를 경청하게 해주시고, 귀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시니어 헬스케어

“ 평생 음악교사였던 내가 음악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기까지 ”

인지건강 & 실버관계 코칭-최인숙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CoCo, 2017)>는 내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해준 영화이다. 영화에는 중요한 세 인물이 등장한다. 우연히 죽은 자의 세상으로 들어가 해가 뜨기 전에 원래 세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소년 미구엘과, 이미 죽었지만 현실 세상에서 자신을 꼭 기억해줘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헥터, 헥터의 딸이며 현실에서 기억이 점차 희미해져 가지만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증조할머니 코코가 그 주인공이다. 헥터는 현실세계에서 딸인 코코가 기억이 희미해져서 자신을 잊으면 영원히 죽게 된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소년 미구엘은 증조할머니 코코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방법으로 어릴 적 아버지 헥터와 함께 불렀던 노래를 들려준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증조할머니 코코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가득 담긴 노래를 통해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노래를 따라 부른다. 죽은 자의 세상에 사는 헥터는 다시 기억을 되살린 딸 코코 덕분에 힘을 얻는다. 이렇듯 음악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례는 또 있다. 다큐멘터리 <이 노래를 기억하세요?>는 노인들이 어릴 적 즐겨 들었던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실험을 통해 증명해내는 영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삶 전부를 잊어버린 치매 노인들이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그 당시 자신의 모습과 상황, 함께 했던 사람을 기억해내고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모습으로 또 한 번 나를 감동하게 했다.

이것이 나를 본 교육에 참여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이다. 나는 음악을 전공하고 1987년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음악교사이다. 퇴임을 앞두고 또 다른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의 전공을 살려 음악치료 공부를 더 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치매예방협회 교육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모든 질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인지음악, 미술 등 예술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나눌 수 있다면, 평생을 교육자로서 살았던 내 삶의 연장으로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보다도 음악의 무한 에너지를 알고 있기에 이제는 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어르신으로 바꿔 어느 질한보다도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치매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삶을 살다 가실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전체 교육프로그램 모두 내게는 신선하고 유익했다. 노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과 국가정책은 나에게도 어김없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로 모든 내용을 귀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얻은 또 하나의 성과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나이와 직업과 삶의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생각이 통하고 목적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긴 시간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던 기억이 참 좋다. 가르치는 일은 더욱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그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 또 하나의 보람이다.

이제 곧 평생의 직장이었던 교직을 떠날 때가 되었다. 24세에 첫 교단에 서서 어설프게 학생들을 만났던 내가 벌써 퇴임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관성이 어디 가겠는가? 앞으로는 내가 평생 해왔던 음악을 어르신들과 공유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배울 수 있으니 가르침은 곧 배움이다.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다. 다만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 설렘 뿐이다.





시니어 헬스케어

“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며 인생2막을 열겠습니다 ”

시니어 여가프로그램 지도자-김정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였다. 첫째,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가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4년 후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심각한 문제는 강원지역 고령인구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시니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둘째, 나는 현재 공로연수기간 중으로 공로연수는 나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이고 또 인생2막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고민하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올해 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현역에서 은퇴해 늘어갈 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두렵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르신들 말씀에 인생은 60부터란 말이 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니어 여가프로그램 지도자 과정] 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송지영 선생님의 레크리에이션 마술시간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나도 마술을 배워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교육과정에서 마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렇게 몇 가지 마술을 배워봤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비슷하게 따라한다고 해도 숙련되지 않았다. 마술은 수없이 연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 지는 것인데 배웠다고 해서 금방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또한 정봉순 선생님의 레크리에이션 댄스도 기억에 남는다. 마이웨이 음악에 맞추어 하는 율동은 처음 구분 동작으로 할 때는 이해를 하고 따라했지만 음악에 맞추어 하는 동작은 조금 어려웠다. 그런데 이것을 실기시험으로 한다니 가뜰이나 몸치인 나로서는 정말 난감했다.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다행히 보조강사인 신동연 님이 수업시간에 촬영한 동영상을 집에서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따라서 반복하니 순서와 율동을 따라할 수 있었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레크리에이션 댄스를 가르쳐 준 정봉순 선생님의 연세가 7학년 3반이라는 말씀에 모두들 놀랐다. 저 정도의 연세에도 전국을 다니며 배움을 주고 있는 대단한 분이려 존경스러운 마음이 아주 많이 들었다. 73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감동되어 더 열심히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파트너를 계속 바꾸어가며 춤을 추는 건강 포크댄스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타인과 화합을 도모하고 특히 예의를 갖추어 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중·장년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즐거움을 주는 스포츠 활동으로 재미가 있었다. 미래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고령인구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미래는 오늘의 인구 특성에 의해 정해져 가고 인구통계가 정확하다면 어떠한 것이든 내가 만들어갈 여지가 있으며 이는 기회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군복무 시절, 수송부의 구호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라는 문구가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이 문구가 지금 사용될 시기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실버레크리에이션자격증 1급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제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배운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스스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는 생각으로 복습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경로당 등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어 나가고 싶다. 끝으로 이런 좋은 과정을 교육시켜주신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에 고마움을 전한다.





시니어 헬스케어

“ 봉사를 하며 배움을 실천하는 일이 나와 어르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요 ”

실버인지 건강지도자-허혜숙

정년퇴직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너무 재미있고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이 나이에 좋은 사람들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 배우는 동안 너무나 행복했다. 늦은 나이에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하였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실버인지 놀이지도자 과정과 요 터치 건강교육 지도자 과정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만으로 큰 동기부여가 되어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배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8주 과정 동안 배우는 기쁨도 있었지만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나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한다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었다. 하루하루의 교육과정을 배우는 것도 좋았고, 무언가를 배워서 실행하는 것에 내 자신도 힐링이 되며 더 감사함을 느꼈다. 내가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다보니까 배운 것을 바로 어르신들께 해드리다 보니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나도 뿌듯했다.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어르신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더욱 더 배우고 성장하는 내가 되고 싶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억에 남는 추억들을 참 많이 만들어 정말 즐거웠다. 같이 배웠던 18명 모두 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었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서 호감과 친근함이 느껴졌다.

친정어머니가 97세이신데 치매 앓으신지 3년 되었다. 그래도 예쁜 치매라 온순하시고 얼굴 표정도 좋으시다. 8주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인천에 계신 어머니를 방문해 배운 것을 실천해 보는 것도 크나큰 즐거움이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며 따라하시며 좋아하셨다. 어머니 때문에 올케도, 동생도, 나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땀고 이제는 더 필요한 지식습득을 위해 내가 먼저 도전해 보려고 한다.

교육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왜 좀 더 일찍 이러한 것을 알지 못했나 하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제라도 이런 기회로 인하여 필요한 것을 배웠으니 좀 더 집중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도 배워볼 생각이다.

처음에는 치매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지미술과 음악, 활동과 같은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내가 감명 깊게 배웠던 수업이 바로 어르신의 예전 기억을 회상시켜드리고 서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실버인지 회상수업이었다. 일을 하는 중에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에게 활용을 해보니 정말 좋아하셨다. 손과 발 그리고 촉각 및 청각, 모든 지체를 동원하여 감각을 살리고 일으키며 나도 어르신에게도 보람찬 삶이 주어진 것 같았다. 내가 봉사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더 힐링되었음을 느끼며 하루하루가 뿌듯해졌다.

요양보호사로서 치매교육을 이수하여 내가 배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은 재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배우고 발전해서 나중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며 일을 하고 싶다. 지금은 처음이라서 의욕만 앞서고 하루하루가 배우는 것이 더 많지만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서 앞으로는 더 배우고 경험해서 좋은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하고 싶다.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워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렇게 감사한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볼 것이다.





8. 친환경 마을공동체 조성

친환경 마을공동체 조성 과정



개요

- 도시재생 사업 예비후보 발굴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요구
- 도시재생 완료사업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필요
- 도시재생 관련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

운영프로그램

- 춘천·홍천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 트렌드에 발맞춰가는 탄소제로 목공과정

교육과정 / 활동

- 주거복지·삶의 질 향상
- 도시활력회복
- 일자리창출
-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단계별 계획

춘천·홍천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주관대학		춘천도시재생지원센터 / 홍천도시재생지원센터	
자원	역할	자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디자인과 • 시각영상디자인과 • 사회복지과 • 행정실무과 • 목공실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교육 지원 • 강의실 및 목공 실습장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후보사업지 관련 정보 • 사업완료지 네트워크 • 도시재생 관련 노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관련 필요교육정보 • 교육대상자 선발 지원 • 중앙정부 지원사업 공모



춘천·홍천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PLAN	DO	CHECK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 협력사업 계획 수립 • 기관별 동원 가능한 자원 확인 및 검토 • 성과평가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양성 • 목공지도사 양성 • 생활목공 교육 • 주민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추진계획 실행 평가 • 수요자 만족도 평가 •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 대내·외 평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결과 및 사업 발전 계획 심의 및 의결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친환경 마을공동체 조성

“ 교육을 통해 배운 전문가의 힘, 지역 발전을 위해 펼치겠습니다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교육-이상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며 많은 주민들을 만나왔다. 하지만 도시재생의 특성상 많은 주민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주민들 간에 의견 대립이 생길 때마다 항상 담당자로서 갈등 해소와 결론 도출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그 해결 방법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예전 황희정승 동화에서 보던 것처럼, 너도 맞고, 너도 맞다는 식의 뜻뜻미지근한 반응이 전부였고, 문제는 항상 제자리에서 맴돌기만을 반복했다.

그러던 차에 HiVE 사업의 퍼실리테이션 교육이 개강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정말 나를 위한 맞춤형 교육인 것 같았고, 이 과정을 잘 듣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제대로 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다.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많은 공부와 수업을 통해 전문가 수준으로 역량을 키워 주민과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야심차게 시작한 홍천군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작은 밑알이 되고 싶다는 꿈과 함께 교육에 참여하였다.

퍼실리테이션 교육의 첫 배움에서 퍼실리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을 배웠다. 모든 사람의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는 것과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퍼실리테이터가 가져야할 기법의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모든 의견을 동등하고 귀중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자에게 질문을 할 때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과 참여자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는 것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우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기술들은 꼭 퍼실리테이션 과정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기술들이었다. 교육을 통해 도시재생의 코디네이터 역할과 함께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마을의 주민과 함께 교육에 참여하였다. 함께 교육을 받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라포’가 형성되었다. 교육을 통해 나에게서는 조연자, 언니, 오빠, 이모, 삼촌, 그리고 선생님이 생겼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홍천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면서 토론하고 경청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리더로도 성장할 수 있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육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홍천의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겼고,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홍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리더,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전국 어디든 도시재생센터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운영이 된다. 나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계약기간이지만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통해 배웠던 지식과 경험을 도시재생의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자 한다.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전문성으로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활용을 하고, 마침내 나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





친환경 마을공동체 조성

“ 나만의 가구를 만들어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할 거예요! ”

탄소제로 목공-이지은

티비나 유튜브에서 환경문제를 자주 접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와 우리 후손이 살게 될 지구에 대한 걱정을 항상 하게 되었다. 하지만 환경과 개발은 영원히 양립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도 항상 하고 있었다. 솔직히 나 조차도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일회용품 짬이야, 자동차짬이야 하는 생각에 환경보다는 편안함을 더 우선시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살았고, 그러던 중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뉴스와 미디어에 유독 눈이 가던 차에, 버스 광고로 ‘탄소제로 목공 과정’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전문직업교육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탄소제로가 붙은 강의는 처음 접해보는 것 같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평소 관심가던 분야라, 호기심이 생겨 바로 지원하게 되었다. 특히 춘천은 깨끗한 도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과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또 평소에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았던 나는 직접 가구 만드는 방법을 배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성취감을 얻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수업은 나무에 대해 이론으로 시작했는데, 막연히 나무가 가구가 되고, 집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나무와 그 특성이 있었고, 그걸 잘 살려야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강의는 시작되었다. 또 건축의 기초가 나무와 목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친환경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시대인데, 그 어떤 것보다도 나무로 집을 짓고 나무로 가구를 제작하는 것이 환경에도 이롭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직접 나무를 자르고 작업하는 시간이 매우 부듯하고 재미있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가구라 애착이 생기고,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게 빨리 바뀌고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오래된 나무는 점점 멋스럽게 변하고, 고쳐 쓰고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이 삶에 정말 필요한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많은 것을 느끼는 수업이었다.**

무엇보다 내가 직접 나무를 제단하고 갈고 마무리하는 작업이 부듯하고 성취감이 컸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생활에 필요한 도구와 가구처럼 쓸모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는 시간이었다. 마냥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의자 만들기과 트레이 만들기도 성공해내며 무엇이든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평소 내가 알지 못했던 분야였기 때문에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 되었다. 또 나무를 통해 자연이 주는 기쁨도 알게 되었다. 목공을 더 깊게 배워 가구를 직접 만드는 일을 해봐도 재미있고 부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프로그램 이수 후에 또 다른 과정도 참여하며 기술을 연마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회가 된다면 소소하게라도 목공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춘천시와 홍천군이 함께 하는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 성과 사례집

발행인 이현주

발행처 한림성심대학교 HiVE사업단

발행일 2023년 2월

디자인 디자인 페스티벌
